



Gospel of S. Luke in Korean  
 Rev W. Wright Secy Bible Socy London  
 with complets of J.R.  
 Newchwang 24 Dec 82

광세팔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양심  
 문광서원  
 간





Handwritten text at the top of the page, possib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The text is mirrored and difficult to decipher.

4206763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s in the right column: 明倫彙編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s in the middle column: 家範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s in the left column: 卷之四



BSS. 604. E82.1

604 E82  
SL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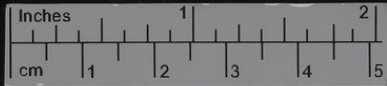
D+M 5984

MM 6 16

누가 데일장

더기 열어 사람이 부슬들어 우리가운데 일운일을 괴술하되 처음으로  
 부터 친이 보고도를 면하년 자우리를 준비 갖되 하엿기 로니 또 뜻하여  
 모든 일을 자세이 근원을 좃차 치레 토써 귀인 데 오비노의 존전에 앙말  
 하문 귀인 볼너 보인 비의 실정을 알게 하미 라 유디 왕헤롯세를 당하여  
 아비아 자손의 반년에 제사 일음은 사가랴 요그체는 아론의 후에 일음  
 은 이니 사빅이 니 두 사람이 하느님의 압페셔 올운 자라 주의 계명  
 파네를 좃차 하히여 흠이 업스되 다 못아 들이 업스 문이니 사빅이 잉터  
 못하 고 두 사람의 나 이 또 한 늘 그 미라 마 즘 사가랴 그 반년을 의지 하여  
 제사의 직분을 하느님의 압페 하히고 제사의 규례를 좃차 제비를 어  
 더 주의 면에 들어가 분향 하니 셔여 못빅성은 밧게셔 비터니 주의  
 사자 사가랴의 게보이 고향 단 올운 견에서 거늘 사가랴 보고 황망하여  
 무셔워 하니 사자 볼너 갈으되 사가랴는 무셔워 말나 너의 비년 거시 이  
 무들터 시니 너의 체이니 사빅이 장차 아 들을 나 아 너를 주리니 일음을

ㄱ



요안나라 하라 너 장차 깃거 하며 즐거워 하고 또 그 나물 인하여 깃거 할  
 자 만을 거시 주의 압페서 이 아희가 크미 되여 청주와 독주를 다 마시  
 더 안 꼬성신이 오 맘의 티로 부터 너의 하리니 테 반드 시이 살 일 사람으  
 로 하여 금 만이 주 그 하느님께 돌아 가게 하고 테 이니 아의 성정 파  
 능 후 무로 써 주를 압서 헝하여 아 밤 된 자의 마음 으로 하여 금 아 들을  
 돌아 보 게 하고 거스 린 단 자 로 올 운 자 의 디 헤 여 돌아 가 게 하고 주 를  
 위 하여 온 전 한 빅 성 을 예 비 하 리라 하니 사 가 라 사 자 게 같 으 되 니 가 이  
 무 들 썩 너 의 체 가 또 한 늘 거 시 니 너 엇 디 이 를 알 니 요 하 니 사 자 더 답 하  
 여 같 으 되 나 는 감 발 열 이 니 하 느 님 의 압 페 서 모 시 년 자 로 불 이 물 빛  
 드 리 네 게 말 하 여 이 복 음 으 로 써 보 호 노 라 그 러 나 베 반 드 시 버 버 리 되  
 여 능 히 말 티 못 하고 일 을 일 우 년 날 에 밋 츠 문 서 날 으 리 반 드 시 용 헝 하  
 리라 하 년 말 을 빗 디 안 으 미 라 하 터 라 빅 성 이 사 가 라 를 기 더 려 그 올 의  
 성 년 안 에 이 스 물 기 기 이 네 기 러 니 나 오 미 능 히 터 부 러 말 티 못 하 니 빅  
 성 이 그 성 년 안 에 서 현 성 본 줄 을 알 고 테 또 한 형 언 하고 맛 춤 너 버 버 리



성이 그 성년 안에서 현성본조를 알고 또 또한 형언하고 맛춤너버버리

되니라 그 직사의 날이 차미 집으로 돌아 가니 후에 그 체이니 사빅이 영  
 터한디라 숨긴디다 슷말에 말호문주 나를 돌아 보와 붓구려 우물인  
 간에 싯고이 갓티나를 뒤점호미라 호터라 여 슷말에 놀으려 사자 갑발  
 열이하느님의 보너 돌밭드러가니 너 붓튼고을에 놀으니 일음은 나  
 살날이라 한체네게 남호니 다 빛의 일가 사람 일음은 요섭이라 년자게  
 텅 혼한체네 일음은 마리아이라 사자 나아가 같오되 온혜를 밧은 자야  
 편안호라주 너를 항게 호여 네가 은 튜을 어덧다 호니 체네 보고그 말  
 을 황망호여 이엇터 한운안인가 싯각호니 사자 같오되 마리아은 무서  
 워 말나 너은혜를 하느님 으게 어더 장차 잉터 호여 아 들을 나을이니  
 그 일음을 예수라 칭호리라 데 장차 크미 되여 지극기 높픈이의 아들  
 이라 칭호디니 주 하느님이 그 조상 다 빛의 위로써 주워 기닌야 곱  
 의 집에 왕노릇호여 그 나라이다 호미 업스리라 호니 마리아이사자게  
 놀오되 너 덕인티 못호여 시니 엇디 이런 월이 이스리요 사자 뒤 답호여  
 같오되 성신이 장차네게 강남호여 지극기 높픈이가 능호무로네게 감



동흥리니 일노써나 년비성인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호리라 또 너  
의 친척이니 사뵈이 불되 잉터 못 흥던 자가 늘마에 잉터한디 이제 여  
숫말이니 하느님은 능터 못한 비업너니라 마리아의 딸이 되고 나는 주  
의 시비니 천사의 말갓터니 게응험호 소셔하니 사자아여 써나 가니  
라 써여 마리아의 날어나 급피산둥에 가유던 고을에 날으러사 가랴  
의 집에 들어가이니 사뵈이 게문안하니 이니 사뵈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써여 터가 그 비쪽에 서 쉼고 또 이니 사뵈이 녀키 성신을 받은  
디라 그게 소리하여 갈으되 체네가운데가 축슈호물엇고 네 잉터한  
비또인 축슈호물엇도 다 우리주의 오맘이 너게나 아오니 이어 드런  
일인고 문안소리한 번너 귀여 들니 뒤터갓거니 비쪽에 서 쉼니 너 밋  
으 무로복이 잇년거시 주의 말한 비응험호리라 호미라 마리아의 딸  
으 되너 마음이 주를 돕피고 너 병혼이나를 구완호년하느님 으로  
써즐거워호거시 테시 비의 미약호물들아 보미니 이제는 만세여나를  
복잇다 말호거시 전에 능한이가나를 위하여 데사를 일너시니 성인손



복잇다말을거시전에능한이가나를위하여더사를일너시니성인술

어운디라그일음이여그은혜가두려워하년차으게밋쳐디여괘을  
거시라테팔노써힘을버푸러마음에프만을품년차는혜터며현세잇  
년차는그위여너렵티며나존자를거천하며주린차는도운음식으로  
써빈부루게하며부자로하며금공연이돌아가게하며종이슬일을뜻  
들눈압라합파그자손으게긴년은혜를기록하시미우리조상파말  
하심갓다하고이며미리일이더부러식달을향게하고집으로돌아가  
나라이니사뵈어나을괴약이차아들을나으니닌니와친척이주 큰  
은혜로써주물듯고더부터함게즐거워하고야들이만에와그아들을  
위하여할네를 헝하고그아밤의일음으로써서기려라일음하니그  
오밤이말하되안이라맛당이요한니라일음하니못사람이갈으되너  
의친척에이일음이하나토업다하니이여형용으로써그아밤의게갈  
으치되무순일음으로써일음홀췌하니아밤이분판을청하여써갈으  
되요안니라하니못사람이괴괴이네길세그입이긋열니고혀가풀어  
터이여하느님을 찬미하여말하니닌니다무셔워이일음오은유되



산둥에 면하여 들년자 마름에 간 덕하여 갈오되 이 아희가 장차 엿디하  
리요 흥문주의 손이 함께 한다 하더라 그 아밤사가라 너 덕지 성신을  
바다 밑이 말하여 갈오되 충슈홀라 주 이슬 일하느님이여 그 빅  
성을 돌아 보와 속하고 주 넷적 선디의 입을 부탁하여 말한 비갓티우  
리를 위하여 구완하고 주를 그 종다 빛의 집에서 우니 곳우리를 모든  
원수와 미워하고 년자의 손에 구완하여 은혜를 우리 조상에게 하고 또  
성약을 기록하여 시니 곳우리 조상 압라함으로 더 부러 발하신 비밍세  
라 우리를 원수의 손구완하여 무셔우미 업시 평성에 주의 압페셔 정  
성과 의로써 성길디니 아희야 너를 장차 지극기 높판이의 아들이라 불  
을 거시니 주를 압셔 하고 여 그 길을 예비하고 우리하느님의 은혜  
로 말무야 죄셔우로써 그 빅성으로 하여금 구완하물 알게 하리니 일  
노써 식박 빛치우으로 부터 우리게 남하여 써여 두운데 거한자와 죽은  
그늘에 잇년자 으게 빛치우고 우리 발을 편안한 길에 인도하리라 하더  
라 그 아희 잘인 여정병이 곳건하여 들어에 거하여 이슬일의 낮타나년





라 그 아히 잘 이 여 정 병 이 굿 같 호 여 들 어 예 거 호 여 이 슬 일 의 낮 타 나 년

날에 날으리라

누가 데 이 장

당 시 여 기 산 아 고 사 독 이 조 세 를 닐 여 텨 하 로 호 여 금 다 호 적 을 읊 니 년  
데 쿠 레 노 는 수 리 아 방 뵈 이 되 야 슬 셔 여 호 적 이 처 음 으 로 히 호 년 타 뭇  
사 람 은 가 호 적 을 읊 니 고 각 각 그 고 을 노 돌 아 가 니 요 션 은 다 빛 의 죽 보  
라 고 로 가 니 닐 의 나 살 일 고 을 노 좃 차 유 더 다 빛 의 고 을 에 올 나 가 니 뱃  
니 염 이 라 그 빙 문 한 비 체 마 리 암 이 무 잉 튀 한 자 로 함 게 호 적 을 읊 니 더  
니 마 즘 거 괴 셔 아 희 나 을 괴 약 이 차 이 여 맛 아 들 올 나 아 비 로 썩 싸 고 말  
궁 이 여 누 이 문 직 텨 에 용 남 흘 곳 이 업 스 미 라 그 썩 여 양 치 년 자 들 어 예  
거 호 여 밤 에 그 물 이 를 더 기 년 테 주 의 사 자 강 남 호 여 주 의 영 화 리  
운 빛 치 들 우 빛 치 우 거 늘 그 게 무 셔 워 호 니 사 자 날 디 같 으 되 무 셔 워 말  
나 닐 너 의 게 더 희 홀 복 음 으 로 썩 텨 호 노 니 이 는 못 뵈 성 을 위 흘 거 시 라  
오 늘 다 빛 의 고 을 에 너 의 을 위 호 여 구 주 를 강 성 호 니 곳 기 리 스토  
라 너 의 어 린 아 희 를 비 로 썩 싸 말 궁 이 여 누 이 물 보 고 표 를 삼 으 라 호 고



문득 열어던사 이서사자파할게하느님을 칭찬하여 같으되 지극기  
 롭은자의가운데는 영화가하느님 의게돌아가고 싸에는하느님  
 사랑헌년사람으게화평하니라 하고 모든던사 색나하늘노올나가니  
 목양인이서로볼너 같으되 뱃니 열에가주 우리게알구인비일을보  
 자하고이여급피가마리압과요섬과또얼인아희를공이여누이들차  
 자보고즉시어린아희를위하여말한비로써보하니듯년자다목인의  
 말한비를괴기이네기되오직마리암이모둔말노써마음에간슈하여  
 유렴헌터라목인이돌아와본비와들은비다던사의말갓트물인하여  
 영화를하느님 의게돌리고 칭찬헌터라아희를위하여할네 헌년  
 팔일이차미그일을음예수라칭하니곳잉터하기전에던사칭한비라  
 정한날이차미모쇼의법을의지하여즉시되리고예루사렘에올나가  
 써주 게디리고주의 법에쓰비갓터무룬첫아들은반드시하느님  
 의 성자라칭하고아올내제물을다리년테주의 법에닐은비갓터  
 한쌍반구와혹두기식기비들기로써헌터라예루사렘에한사람이이



의 성 자 리 창 호 고 이 올 내 저 물 올 리 난 타 구 의 법 에 는 은 바 거 든  
 한 쌍 반 구 와 혹 두 키 식 기 비 들 기 로 써 호 터 라 예 루 사 렴 에 한 사 람 이 이

스니 일 음 은 시 몬 이 니 그 사 람 이 올 고 또 성 심 이 이 너 디 라 이 살 일 빅 성  
 이 위 로 밧 기 를 기 더 리 고 또 성 신 이 감 동 호 년 디 라 일 족 성 신 의 묵 시 를  
 밧 아 죽 기 전 에 반 드 시 주 의 키 리 스토 를 보 리 라 호 터 라 데 성 신 의  
 개 감 동 호 여 성 년 에 들 어 가 니 마 즘 예 수 의 부 모 이 린 아 희 를 더 리 고  
 들 어 와 범 을 좇 차 힘 고 자 호 니 이 여 아 희 를 안 고 하 느 님 을 초 슈 호 여  
 갈 으 되 주 이 재 종 을 노 와 안 연 이 가 게 호 시 니 주 의 말 갓 트 문 너 는  
 으 로 구 완 보 들 인 호 미 라 곳 주 만 민 의 악 폐 갓 춘 비 요 밧 치 되 여 써 외  
 방 에 밧 치 우 고 아 올 나 주 의 빅 성 이 살 일 의 영 화 되 리 라 호 니 예 수 의  
 부 모 말 호 년 비 를 귀 귀 이 네 기 니 시 몬 이 축 슈 호 고 아 희 오 맘 마 리 암  
 게 블 너 갈 으 되 이 아 희 서 이 살 일 사 람 으 호 여 금 만 이 귀 호 며 흥 호 게  
 호 고 또 변 박 을 밧 년 자 루 가 되 고 네 마 음 에 또 한 반 드 시 칼 이 들 이 가 뭇  
 사 람 의 심 각 으 호 여 금 밧 타 빌 이 라 호 터 라 또 아 실 의 지 꾀 여 바 누 열  
 의 살 인 나 가 이 스 니 셴 디 요 나 이 늘 근 디 라 체 베 로 특 인 한 디 칠 년 에 파  
 거 호 여 나 이 야 든 너 이 라 성 년 을 써 나 디 안 고 금 식 호 며 빌 기 로 써 밤 낮

五



성기터니이셔여압페나아와주들 감샤하고또예루사렘에구완엇  
 기를기더리던사람덜노더부러이아회를말하더라예수의 부모주  
 의법을좃차써모든일을일우고즉시가니니로돌아가넋고올나살일  
 예닐으니그아희잘이며건장하고디헤가덕덕하니하느님의 은통  
 으로하더라미년유월절에그부모예루사렘에가더니예수 열둘에  
 나실셔여절기의규례를좃차예루사렘에올나가괴약을맛추고돌아  
 오던데아들예수 오이러예루사렘에뉴하니그부모아디못하고반  
 드시동행하년자의등에잇년가뺏하고하루길을행하다가친척파벗  
 사이여차자만너디못하고즉시예루사렘에돌아가찾다가사흘후에  
 성년에서만너니선싱가운데안저듯고또무루니듯년자다그디헤와  
 뒤잡고괴이이베기거늘부모보고이상이베겨그오망이닐너갈으  
 되아회야엇디이갓트볼우리게행하너너의부친이나파항게속이  
 상하여너를차갓다하니뒤잡하여갈으되엇다나를차즈며맛강이너  
 아반이소에이슬줄을아디못하엿너니잇가하니부모그말을씨닷디

열둘에  
 가니니  
 로돌아  
 가넋고  
 올나살  
 일예닐  
 으니그  
 아희잘  
 이며건  
 장하고  
 디헤가  
 덕덕하  
 니하느  
 님의은  
 통으로  
 하더라  
 미년유  
 월절에  
 그부모  
 예루사  
 렘에가  
 다니예  
 수열둘  
 에나실  
 셔여절  
 기의규  
 례를좃  
 차예루  
 사렘에  
 올라가  
 괴약을  
 맛추고  
 돌아오  
 던데아  
 들예수  
 오이러  
 예루사  
 렘에뉴  
 하니그  
 부모아  
 디못하  
 고반드  
 시동행  
 하년자  
 의등에  
 잇년가  
 뺏하고  
 하루길  
 을행하  
 다가친  
 척파벗  
 사이여  
 차자만  
 너디못  
 하고즉  
 시예루  
 사렘에  
 돌아가  
 찾다가  
 사흘후  
 에성년  
 에서만  
 너니선  
 싱가운  
 데안저  
 듯고또  
 무루니  
 듯년자  
 다그디  
 헤와뒤  
 잡고괴  
 이이베  
 기거늘  
 부모보  
 고이상  
 이베겨  
 그오망  
 이닐너  
 갈으되  
 아회야  
 엿디이  
 갓트볼  
 우리게  
 행하너  
 너의부  
 친이나  
 파항게  
 속이상  
 하여너  
 를차갓  
 다하니  
 뒤잡하  
 여갈으  
 되엇다  
 나를차  
 즈며맛  
 강이너  
 아반이  
 소에이  
 슬줄을  
 아디못  
 하엿너  
 니잇가  
 하니부  
 모그말  
 을씨닷  
 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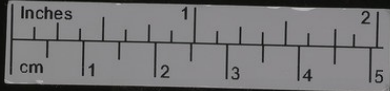


못 하던 디라 예수 함께나 살일에 들어가 순종하니 그오 맘이 이 모든  
일노써 마음에 간직 하더라 예수 티욱디 해하며 자리며 은통을 하느  
님과 및 사람의게 보하더라

누가 데 삼장

티 비류기 살의 위여 이 손디 숨오 년에 본토포나 토는 유디 방벽이 되고  
헤롯 손가니 누분봉군이 되고 그 동성비니 포는 이 투리와 틀고니 티도  
싸분봉군이 되고 누산유는 아비니 누분봉군이 되고 아나와 기아 박제  
사당 되여 슬써여 사가라의 아들 요안니 들어 에셔 하느님의 명을 받  
고 이여 요단기 골사방에 날으리 회기의 밤 텨네를 연하여 써 죄를 사게  
하니 셤디 이 사야의 글에 말한 비갓튼 거시 들어 에셔 솔이 불너 갈으되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쇼로를 밭으게 하라 모든 골이 치기가 멎기 우  
고 산과 두터이 낮고 고분 거시 밭으고 돌과 말이 가 평디 될디니 무른사  
람이 시러 금하느님의 구완을 보리라 하더니 요안니 밤 텨네를 바드  
레 온 못사 램게 불너 갈으되 독샤의 뉴야 누가 너의 를 갈으쳐 장년의 노

상 하 여 너를 차 잤다 하니 뒤 답 하 여 갈으 되 었디 나 를 차 즈 며 맛 땅 이 너  
아 반 이 소 에 이 슬 줄 을 아 다 못 하 었 디 나 이 가 하 니 부 고 그



ㅎ물피ㅎ라터냐맛당이회기여합당계열음을밋치고스서로말ㅎ여  
 암라함으로우리조상을삼디말나너너의게말ㅎ너니하느님이  
 히이들노써암라함의자식이되게홀디라이제독구남우셀이여이스  
 니무룬남기션한열음이밋치디안년거슨곳셔어불에터딘다ㅎ니못  
 사람이물어갈으되그러나우리맛당이무워슬ㅎ릿가되담ㅎ여갈으  
 되옷두벌이이스면논아웃업슨자를주고밥도또한그리ㅎ라ㅎ터라  
 세판이또와셔그밥팀베를밧고자ㅎ며물어갈으되션성남우리맛당  
 이무워슬ㅎ릿가갈으되영한부세외여는취티말나ㅎ고또군사무리  
 갈으되우리맛당이두워슬ㅎ릿가강포티말며거죽고티말고어든비  
 낭식으로써죽ㅎ다ㅎ라ㅎ터라빅성이기되리물품어마음에요안네  
 를혹기리스토 인가싱각ㅎ니요안너못사람게닐너갈으되나는볼  
 노써너의게밥팀베를주나오직나를이괴년자올디니너그신들미를  
 감이풀디못ㅎ리라데장차성신파볼노써너의를베졸디니그손에키  
 를잡고반드시그마당출살이여곡셔은거두워창에디리고게는세디

ㅎ물피ㅎ라터냐맛당이회기여합당계열음을밋치고스서로말ㅎ여  
 암라함으로우리조상을삼디말나너너의게말ㅎ너니하느님이  
 히이들노써암라함의자식이되게홀디라이제독구남우셀이여이스  
 니무룬남기션한열음이밋치디안년거슨곳셔어불에터딘다ㅎ니못  
 사람이물어갈으되그러나우리맛당이무워슬ㅎ릿가되담ㅎ여갈으  
 되옷두벌이이스면논아웃업슨자를주고밥도또한그리ㅎ라ㅎ터라  
 세판이또와셔그밥팀베를밧고자ㅎ며물어갈으되션성남우리맛당  
 이무워슬ㅎ릿가갈으되영한부세외여는취티말나ㅎ고또군사무리  
 갈으되우리맛당이두워슬ㅎ릿가강포티말며거죽고티말고어든비  
 낭식으로써죽ㅎ다ㅎ라ㅎ터라빅성이기되리물품어마음에요안네  
 를혹기리스토 인가싱각ㅎ니요안너못사람게닐너갈으되나는볼  
 노써너의게밥팀베를주나오직나를이괴년자올디니너그신들미를  
 감이풀디못ㅎ리라데장차성신파볼노써너의를베졸디니그손에키  
 를잡고반드시그마당출살이여곡셔은거두워창에디리고게는세디



를잡고반드시그마당을살이여곡역은거두워창에다리고계는...

더안년불노써살우리라하고또열어말노써권하여복음을뵈성계된  
 하되다못분봉왕해롯이동심의체헤로다의게한일파행한비모둔의  
 으로써최망을요안년의게보고그악을더하여요안니를옥에가두니  
 라못뵈성이밤틈네를밧는데에수 또한밤틈네를밧으며비년데하  
 늘이열니고성신이형상으로비들기갓티그우에강남하고또하늘노  
 솔이이서늘오되너는너의사랑헌년아늘이요깃거헌년비라하더라  
 석여예수의 나이삼십이니사라이씨요셉의아들이라하고그아밤  
 은헤니요그아밤은마티요그아밤은니위요그아밤은밀키요그아밤  
 은얀니요그아밤은요셉이요그아밤은맛타디요그아밤은아뭇이요  
 그아밤은나움이요그아밤은예슬니요그아밤은낙키요그아밤은마  
 앗이요그아밤은맛타디요그아밤은쉬미인이요그아밤은요석이요  
 그아밤은요다요그아밤은요아난이요그아밤은레싸요그아밤은쏘  
 로바발이요그아밤은사나텔이요그아밤은네리요그아밤은밀키요  
 그아밤은앗디요그아밤은죄삼이요그아밤은일마담이요그아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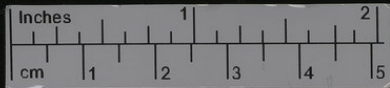
열이요 그아밤은 예수요 그아밤은 인네 살이요 그아밤은 우리암이요  
그아밤은 맛닷이요 그아밤은 니 위요 그아밤은 수몬이요 그아밤은 유  
다요 그아밤은 요섭이요 그아밤은 남이요 그아밤은 열야 김이요 그아  
밤은 밀야요 그아밤은 민나요 그아밤은 맛타요 그아밤은 나 단이요 그  
아밤은 다 빛이요 그아밤은 옛시요 그아밤은 오벳이요 그아밤은 보웃  
이요 그아밤은 살몬이요 그아밤은 낫손이요 그아밤은 아미나답이요  
그아밤은 알기이요 그아밤은 잇론이요 그아밤은 바릿이요 그아밤은  
유다요 그아밤은 야곱이요 그아밤은 삭이요 그아밤은 악라 학이요  
그아밤은 바카요 그아밤은 나코리요 그아밤은 사륙이요 그아밤은 라  
가우요 그아밤은 발되이요 그아밤은 이빌이요 그아밤은 사나요 그아  
바문 제난이요 그아바문 아발삿이요 그아바문 셴이요 그아바문 노아  
요 그아바문 나되이요 그아바문 마두사나요 그아바문 이득이요 그아  
바문 아릿이요 그아바문 마너넬이요 그아바문 제난이요 그아바문 이  
늦이요 그아바문 섯이요 그아바문 아달이요 그아바문 하느님이니라







되글에 불러 시니 주 너의 하느님을 시엎티 말나 하미 귀시엎을  
 다 하고 잠간 써나 나 예수 성신의 능함 무로써 가니 너에 돌아 가니  
 괴명성이 사방에 퍼져 거늘 모든 회당에서 갈이 치니 못사람이 영화를  
 돌니 더라 잘인 난 곳 낙살일에 날으리 사밧일에 전 더로 회당에 드러가  
 서서 성경을 오이려 하미 셤디 이사야의 글을 주니 책을 펴터 기뻐할 보  
 니 써스되 주의 성신이 너게 남함 문복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면함을  
 부탁하며 요또나를 보니 여사루잡힌 자를 노이게 하며 쇠경을 보게 하  
 고 석게 단자를 노와가 게 하 여 써 주의 희년을 보라 하엿거늘 이여  
 칙을 담어 집사를 주고 안즈니 회당 못사람이 눈을 부어 보년 더라 예수  
 불러 잘으되 이 글이 오를 너의 귀여 응하엿다 하니 못사람이 간증하  
 고 괴임으로 온통 말하 불괴괴이 베기고 또 갈으되 이 요셉의 아들이 안  
 이냐 하니 예수 갈으되 너의 속담을 너게 날으라 하니 의연아 스서로  
 곳 더라 우리 너의 가뵈공에서 행한 거술들으니 또 한 본토에 행하라 하  
 고 또 갈으되 너실 노 너의게 말하 너니 셤디 가 본토에서 더 접을 밧은



고도갈으되니실노너의게말하너니연다가본토에히하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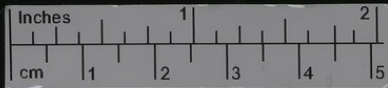
자업너니라니실노너의게말하너니아세에하늘이삼년반을닷  
 겨오온싸이크게기황하여이살일에수다한파부가이스되이니아불  
 이물밧드러오직시돈의사롭다한파부게만나아가고또션디이니시  
 셔여이살일에수다한뵈남풍하년자이스되오직수리아의너만이정  
 흥물어덧다하니회당못사람이듯고심이노하여닐어성밧게쫓차슬  
 고성지은산별양에닐으러밀티고자하되예수바루못사람가운데  
 로히하여가더라가니너의가뵈남에닐으러사방일에갈으치니못사  
 람이그갈으치물이상이네기문그말이권세이스미라회당에한사람  
 이더러운샤귀의신에붓튼비되야크게불너갈으되나살일예수는  
 우리너의로터부러어들어기로너와셔우리를멸하너노너를닐출  
 을아년거시하느님의성자라하니예수최망하여갈으되잠잠하고  
 그사람으게나오라하니샤귀못사람가운데디고이어나와그사람  
 을샹티안이하니못사람이괴괴이네겨서루말하여갈으되이엇더한  
 말이기도데권세와능흥무로써샤귀게명하여곳나온다하고그소문



이 사방에 나더라이 여 회당에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양모  
연병이 심이 동한 디라 사람이 위호여 예수게 구호니 예수 갓가이  
셔서 연병을 최망호미 연병이 물너가닌디라 곳블어나 일을 엿투터라  
히 딜셔여 물운 사람이 병잇년자는 다 더리고나 아오니 예수 한나식  
손을 그우에 더여 곳티니 귀신이 수다한 사람으로나 와 불너갈오되너  
는 하느님의 아들이라호니 최망호여 그 말을 허티안이 호문테 키리  
스톤 솔알미라 발셔여 셔나 들어애 나가 미 못 사람이 차자나 와 멋추워  
크셔나 더안파테호니 예수 블너갈오되너 맛당이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다 른고에 더 호미 거시니가 불이 물밭들미이를 위호미라호고  
드디여 도를 가니니 모든 회당에 더 호미라

누가 데오장

마 즈 못 사람이 용위호여 하느님의 도를 들을 적에 예수 켄니사 뒷  
히 번에서 서두비히 번에 이스물보니 고기잡년 사람이 비를 쟈나 그물  
을 싣년데 한 비여 올부니 이시몬외히라 청호여 비를 올거 못 들줍셔나



히 변에서 서 두 비히 변에 이 스물 보니 고기 잡년 사람이 비를 써나 그 물  
 이 여 안 저 비가 유테로 못 사람을 갈으 처 말을 다 하 고 시몬 게 날 니 갈으  
 도 비를 움겨 김 풀 곳에 날으 러 그 물 터 잡우 라 하니 시몬 이 갈으 되 녀 감  
 우리 종 야 들 입 부 고 어 든 비 업 스 나 녀 감 의 말 노 써 그 물 올 털 이 라 하 고  
 척 그 물을 터 니 고 기 걸 년 거 시 심 이 만 아 그 물 이 거 의 지 쳐 달 나 거 늘 기  
 여 다른 두 여 동 부 를 물 니 도 우 그 하 미 온 즉 고 기 를 두 비 여 치 와 거 기 징  
 기 게 도 니 시 몬 피 들 이 보 고 제 수 의 료 읍 알 게 업 데 쳐 갈 으 되 주 나  
 를 써 나 소 스 나 근 죄 인 이 라 하 문 데 와 밋 학 게 잇 년 자 잡 운 비 고 기 로 써  
 괴 괴 이 비 기 미 라 시 몬 이 동 무 시 비 디 의 아 들 야 꾀 파 요 간 님 또 하 클 어  
 하 나 예 수 시 몬 게 날 니 갈 으 되 두 령 위 말 나 이 제 로 써 비 장 차 사 람 을  
 어 들 이 리 하 니 데 델 이 비 를 못 트 로 저 어 일 절 이 잇 년 거 슬 비 리 고 쏘 터  
 라 미 즘 인 고 늘 게 서 온 봄 회 남 풍 하 년 자 제 수 를 보 고 업 데 여 구 하  
 여 갈 으 되 주 만 약 슬 기 면 능 기 나 를 간 정 게 하 실 이 다 하 니 기 여 손 을 펴  
 민 저 갈 으 되 니 즐 거 하니 더 간 정 하 라 하 미 회 남 풍 이 즉 시 낮 년 디 라  
 예 수 명 으 여 갈 으 되 사 람 게 고 티 말 고 다 룯 가 제 사 의 게 보 이 고 또 더 간





정호들위호도소명인비갓티덜여써간증을삼우라호니 예수  
 의소둔더욱페고수다하사람이모야도르들려호거병을고티  
 려호더리 예수물너가들어게셔빌터라호루는발이칠터너바리시  
 인파법글으치년자안저스니가니너모든촌파유데안예트사람으로  
 온자리주의능호미이서병을곳티년테사람이상으로써바라증호년  
 자를머고외들어가그압페두려호되사람이만아시렵금들어갈슈  
 업서이여집우게올나집영으로말무야상으로써가유테들이워 예  
 수의압페당호니 예수그미드물보고갈되이사람아네죄샤호엿  
 다호니선비와바리시인의논호되이참남한말호년자가누냐 하  
 느님외여누능이죄를샤호리요호니 예수그의논을알고갈되너  
 의엇디마음에의논호년냐혹죄를샤호년것파불어형호년거세어느  
 거시쉽갓너냐다못너의로긴자짜게셔죄샤호년권세이스를알게호  
 리다호고이여바라증호년자게갈되너네게명호년나닐어나상을  
 가지고집에돌아가라호니테즉시못사람압페닐어나누엇던거슬가



지고 짐으로 가며 영화를 하느님께 돌나니 뭇 사람이 그이 이 베풀어도  
한 영화를 하느님께 돌나고 또 심이 두려워 갈오되 우리 오늘이 상하  
물 보았다 하더라 그 후에 예수 나가 세관 일을 은니 위라 년자 세소  
에 안스물 보고 날너 갈오되 나를 좃추라 하니 이 여일절을 비리고 날어  
좃터라니 위예수를 위하 여연을 집에 비설하고 세관과 다른 사람  
이 뜻게 참여한 자심이 만오니 선비와 바리새인이 데 자게 웅얼결여 갈  
오되 너의 엇디 세관과 죄인으로 더 보러 음식 하너 나하니 예수 날너  
갈오되 성한 자는 의연을 쓰디 안고 형호년자야 쓰너니 너가 오문을 운  
사람을 불너 회기 하미 안이 요다 못죄인이라 뭇 사람이 갈오되 요안니  
의 데 자는 자주 금식 하며 빌고 바리새의 데 자도 또한 그리호년 데 오직  
너의 데 자는 음식한다 하니 갈오되 신방과 함께 이서 능히 경하호년자  
로 하 여금 금식 재하랴 오직 날이와 신방을 더러간 후에야 금식하너니  
라 하고 비사로 쓰갈오되 신 옷을 한직 하여 헌 옷 깎년자 업너니 클어  
면서 거슬리고 겸이 기운 비서 것과 헌 거시 합디 못호고 또 신술 노써 헌

리라고 이 여바람 증호년자 갈오되 너 비게 명호년자 보어 나 상을  
가 지고 짐을 가사 하호년자 보어 나 상을



피뉘여네으미업너니클어면시술이그피뉘를터터술이시키고피뉘또  
 한몫쓸디니오직시술을시피뉘여넛너니라또한묵운술을마시고시  
 술싱각호년자업스문묵운거시터욱도타닐으미라호터라

누가데눅장

마즘한번사밧일에예수 밀밧틀디너넢테테자밀이삭을싸손으로  
 써비바여먹으니바리시인이닐너갈으되너의엇디사밧일에법안인  
 일을호너냐예수 디답호여갈으되너의다밧과죇년자비끔플써여  
 한비췌지오이다못호엿너냐하느님의 甸에들어가던설한씩을취  
 호여먹고또그죇년자를주워시니다못제사외여는먹디못호년법이  
 라호고또갈으되인자도사밧일의주인이라호터라또한번사밧일에  
 회당에들어가갈으치넢테거귀한사람이이서올운손이말온디라선  
 비와바리시인이그사밧일에곳터나엿보문송사호기를어들여호미  
 니예수 마음을알고손말은쟈게닐너갈으되닐어가운데서라호너  
 이여닐어셔거늘예수 못사람게갈으되너의게못너니사밧일에





이여 날 어셔 거늘 예수 못사람이 같이 되니 너의게 못나니 사밧일에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할 파성명을 구원하며 성명을 죽이던 거세어느 거  
 시 합당하갓나냐 하고 이여 들너 보고 그 사람이 날너 같이 되니 손을 펴  
 라 하니 데려티니 손이 족시나 아다른 갓트니 못사람이 심이 노하여  
 함께 의논하여 었다 써예수를 체티고 리요하더라 써예수 산에  
 올라가 빌고자 하여 종야를 하느님께 빌고 발써여 모든 데자를 볼너  
 다 열누를 써여 사자라 칭하니 다 못시몬 또 일음을 피들이라 년자와 그  
 동생안드라 파야 곱파요 인니 파비 남파 발도 노미와 마틴와 다마와 알  
 비의 아들이 곱파예라 칭하니 시몬 파야 곱와 동생 유다와 이속 또 유다  
 니 곱주를 팔자더라 이여 함께 산에 너려가 평디 여셔니 모든 데자와  
 허다한 못사람이 유디사 방파예루사 령파 밋투로와 시몬의 허변으로  
 붓터와 도를 들으며 그 병을 곱터려하고 또 더러운 귀신으게 말년하던  
 자다나으 물어드니 못사람이 예수를 믿지고자 하문 능히 데오게  
 로나아와 써모든 사람 곱터물 인히라 예수 눈을 들어 데자를 보와  
 같이 되간 난한 자복이 이스문하느님의 나라이 너의게 붓트미요 이



제주린자복이이스문너의장차비부루미요이제<sup>十二</sup>우년자복이이스문  
너장차우수미요인자를위하야사람이너의를미워하며멀니하며욕  
하고너의일음으로써악물을삼아비린즉너의가복이이슬디니당일  
에즐거워취닐거리문하늘에서너의상주미크미니그조상이션디의  
게행한거시또한이갓트니라오직너의부한자지화이스문너의일즉  
위로밧으미요너의이제비부룬자지화이스문너의장차주리미요너  
의이제웃년자지화이스문너의장차슬퍼하며올미요못사람이길이  
년자지화이스문그조상이거죽션디게행하미또한이갓트미라너너  
의듯년자으게닐으너너의원수를사랑하며너의를미워하년자를  
션이보며너의를욕하년자를축원하며너의를멀시하년자를위하야  
빌고너의셈티년자를다른셈세지주며너의밧건옷가저가년자를속  
옷세지금티말며너의게구하년자를주며너의물건가저가년자를다  
시달너더말며사람으로너의게행꼬자하년거슬또한이갓디사람으  
게행하라만약너의를사랑하년자를사랑하면무슨은통이이스라죄





다시러금동성계늘오되동성아나를용남호여베눈에가시를비리라  
 호고자괴의눈에벗당을싱과디못호너나거죽선을호년자야민저네  
 눈에벗당을비리고발기보이거든동성의눈에가시를비리라도운남  
 우에못된얼음이밋치디안괴못된남우에도운얼음이밋치디안오문  
 무룬남클얼음으로써알미니형극으로못티무화극를거두디못호고  
 능징이로못티포도를싸디못호너나라션한사람은마음에싸온션으  
 로말무야션을발호고악한사람은마음에싸온악으로말무야악을발  
 호문마음에찬자를입에말호미라너의엇디나를쥬라 칭호고너의  
 말호년비를히티안너무룬너게나아와너말을듯고히호년자를너  
 너의게그사잡이무엇갓트물보일이라사람이집지음갓트니과기를  
 김피호고터를반석우에두면탕슈날쳐여불이그집을밀려도능히동  
 터못호문터이반석우를인호미요오직듯고히티안년자는사람이터  
 업서집을울우에서움갓트니홀이한번밀틴죽이여들어디고그물어  
 더미고니라



이 새 짐을 홀우어 서운갓트니 물이 한번 밀린 죽이여 들어다 고 물어  
더미고니라

누가 데 칠장

예수 비성을 갈으쳐 모든 말을 다 하고 죽시가 빌남에 들어가 년테한  
파총의 사랑하년 종이 병하 여 거의 죽어가 년 디라 예수를 풍문하 고  
유디 당 노털을 보니 여와 그 종 곳 티물 구하 니 당 노 예수 으게 나와  
간절이 구하 여 갈으되 이 사람으 게 이 일노 써 힘하 미 합당한 거 시 테 우  
리 비성을 사랑하 며 우리 를 위하 여 회당을 세워 짜 하 터 니 예수 함께  
가 집 에 서 머 디 안 아 파 총 이 벗 슬 보 니 여 나 와 갈으 되 주 입 부 디 말  
으 소 셔 주 너 집 에 남 하 시 면 너 감 당 티 못 하 고 또 한 자 기 르 주 으 게  
나 아 가 더 도 못 홀 디 니 다 못 한 말 삼 만 하 시 면 너 의 종이 반 드 시 나 올 거  
시 나 는 사 람 의 권 세 여 붓 고 또 한 군 사 는 너 권 세 여 붓 터 시 니 이 사 람 으  
게 말 하 여 가 라 한 죽 가 고 테 사 람 으 게 말 하 여 오 라 한 죽 오 고 너 종 으 게  
말 하 여 이 를 힘 하 라 한 죽 이 를 힘 하 너 니 이 다 하 니 예수 듯 고 기 특 이  
네 거 모 든 죽 년 자 를 돌 아 보 와 갈으 되 너 너 으 게 말 하 너 니 이 살 일 가 운  
테 이 갓 터 크 게 밋 년 거 슬 보 디 못 하 었 다 하 터 라 보 니 었 던 사 람 털 이 들



아가보니 병하던 종이 나온디라 몇날 후에 예수 한 고을에 날으니 일  
 음은 나안이라 데자와 열어 사람으로 터부리 함께 힘겨 여성문에 갖가  
 우니 죽운 자를 머이고 나아오는데 그오맘은 파부로 다 못독자라 데파  
 고을 빙성이 함께 하던 자심이 맘은 디라 주 보고어 업비네겨 갈으되  
 우디 말나 하고 이어 갖가가 그 판곽을 민지니 머인 자 멧추년 디라 예  
 수 갈으되 쇼자야 닐네게 명하니 날어나라 하미 죽운 자 즉시 날어 안  
 저 또 말하니 예수 아 들노써 그오맘을 주 거늘 못사람이 두려 워 영화  
 를 하느님께 돌녀 갈으되 큰 선디 우리가운데 날엇다 하고 또 하느님  
 이 그 빙성을 들아 보앗다 하니 이 소문이 오온 유디와 사방에 허여디  
 터라 요안니의 데자 이 일노써 요안니으게 고하니 요안니이 여두테자  
 를 불너 보너 여주를 보고 갈으되 올자 가디 디니 잇가 모루미 다른사  
 람을 기디리 잇가 하라 하니 두사람이 예수 으게나아가 갈으되 밥팀  
 네을 버푸년 요안니가 우리를 보너 여주 으게나아와 말하되 올자가  
 주 니 잇가 모루미 다른사람을 기디리 잇가 하니 셔여 예수 만이 병



하년자와 증환잇년자와 밋악귀붓튼자를 곳티고 또 쇠경을 보게 하  
 라 이여 더 담하 여 같으 되 너의 가 본 비와 들은 비로써 요인 너으게 고 하  
 라 쇠경을 보게 하 며 절누익이를 힘게 하 며 비남풍하년자를 정게 하 며  
 귀먹당이를 듯게 하 며 죽운자를 날게 하 며 간난한 자으게 복음을 얻 하  
 고 을 운 나로 썩막년거슬삼디안년자는 복이라 하 니 요인 너외보닌사  
 람이 간디라 예수 요안너를 들 어 못사람으게 날너 같으 되 너의 들 어  
 예나 아가 무어슬 보려 하 였너 나 같이 바람에 동하년거슬 보려 하 였너  
 나 그러 연 너의 나 아가 무어슬 보려 하 였너 나 사람이 아름다운 의복 입  
 운거슬 보려 하 였너 나 화레한의복과 호사하년자는 왕궁에 잇디 나 라  
 그런즉 너의 나 아가 무어슬 보려 하 였너 나 선디 나 너의으게 말하 너니  
 이는 선디 보담 크니라 하 니 이는 곳글에 날은 비니 너의 사자를 너의 압  
 께 보너 여압서길예비한다 하 미라 너의으게 말하 너니 부인이 나 온  
 비에는 밧림네를 밧푸년 요안너 보담 크니 업스되 그리나 하느님의  
 나라에 지극기져근자가 오이레테 보담 크니라 하 니 못뵈성파세판이



열즉밥팀배를요안니오게받은디라듯고하느님의 十五  
 오직바리시인파놀범스승이하느님이 저의성각후년뜻을받디안  
 온디라주 같으되이세상사람을니엇더씨비기리요테파연무엇갓  
 트나아희말이걸이에안줍갓트니서로볼니같으되우리테를부되너  
 의썩볼디안이하고슬픈노리를하되너의우디안이하니밤팀배를범  
 푸년요안니는와서썩도먹디안고술도마시디안으되그귀신을꿈엇  
 다말호고인자는와서임의로음식하되너의썩늘으기를테탐식호고  
 슬을즐니년세관파죄인의벗이라하나그러나디해는그아들노씨을  
 우물칭호너니라한바리시사람이예수를 청후여밤을함게호려호  
 니바리시인의집에 들어가안즈미성중에한네인은죄인이라그집에  
 안즌줄을알고옥함예몰약을가지고예수의 뒤에서서그발을벗호  
 고올어눈물노씨그발을적시고머리쌀노문되며또입을그발에접호  
 고물약으로써발으니예수 청한바리시인이이를보코마음에갈오  
 되이사람이션디면반드시민지년자가누며도엇더한네인이며죄인





고물약으로써 발으니 예수 청한바리새인이 이를보코마음에 같오  
 되이사람이런디면반드시민지년자가귀며도엇더한베인이며죄인

업줄알니라호니 예수 같으되시몬아너네게니를말이잇다호니 같  
 으되선생은청컨디말삼호소서호니 같으되빛년사람이두빛진자  
 가이스니한나은은취인냥을지코한나은닷냥을저스되갑골스가업  
 스키데다면호여주위시니그런즉들이전주사랑하기를귀감심호갓  
 니나려말호여라시몬이되말호여같으되너뜻에는안이면한자니이  
 다같으되베의소견이올라호고이여들이위베인을향호고시몬게볼  
 너같으되니이베인을보라너의집에들어와셔도너는물노써너발  
 을씻쳐주며안으되오직테는눈물노써너발을씻고말이슬노문던며  
 너는입으로나를접며안으되오직테는나드리오턴셔르부터입으로  
 너발에접호갈마더안으며너는길음으로써너말이에발으며안으되  
 오직테는물약으로써너발에바른다고로베게볼으니네외만은죄  
 사호문그사랑호미만은미요오직사호미적은자는그사랑호미적으  
 머라호고이여네인게볼너같으되베의모든죄사호엿다호니함께안  
 존자사사라이볼너같으되이엇더한사람이도죄를사호너냐호되에

十六



수 네인게 같오되네의 밋으미너를 구완하너니가이편안이 돌아가  
라하터라

누가테팔장

후에예수 들우성촌에히향여하느김의 나라을보하며복음을들  
향년테열두테자함게향교또한두워부인이이소니일죽약귀의부터  
연약한비로곳티물어든자곳마라니막더벤이라칭향년비니블골귀  
신이그몸으로나아오교또해뜻의집에지상쿠사의체요안나요또소  
산나과다른부인열어이잇년비로써엿투년자디라열어사함이모이  
교또모둔교을노부터오년자이스니예수 비사로말향여같은되동  
사향년자나아가종지를해된다해터년테길헛테열어던거손사함이  
발부머공동에서이다먹교돌에서열어던거손어음이나자곳말은문저  
즈미업스미요형극에서열어던거손가식이갓타자뒤어같이우교도운  
자에서열어던거손나서표실이외곰이라하며말을다하교불너같은되  
귀이스면들오라하니테자우려같은되이비사가엇더니잇가같은되

세종지능하느님의 오니길여계열어던거손사함이도음으로



세에 셤어 단 거 손 나 셔 결 실 이 되 곱 이 라 하 며 말 을 하 고 할 너 같 으 되  
 귀 이 스 면 들 요 라 하 니 제 사 무 리 같 으 되

하느님의 나라 비결은 너의 를 주위 알 게 하고 오직 다른 사람 인 즉 비  
 사를 벗 푸 리 고 보 고 볼 디 못 하 녀 듯 고 씨 닷 디 못 하 니 이 비 사 가 이 거  
 시 라 좋 지 는 하 느 님 의 오 니 길 여 게 셤 어 단 거 손 사 람 이 도 를 들 으 댜  
 댜 귀 곳 날 으 리 그 마 음 으 로 북 터 아 사 가 문 밧 어 구 완 어 들 가 고 돌 에  
 셤 어 단 손 사 람 이 도 를 듯 고 즐 거 원 밧 아 시 나 다 못 셤 이 가 업 서 잠 간 밧  
 다 가 시 염 을 불 썬 여 도 를 비 반 하 고 형 극 에 셤 어 단 거 손 사 람 이 도 를 듯  
 고 가 년 테 세 상 에 모 든 신 각 파 지 물 파 열 낙 이 갈 이 워 결 실 티 못 하 고 도  
 운 새 에 셤 어 단 거 손 사 람 이 올 것 어 단 마 음 으 로 씨 도 를 들 어 댜 키 고 썬  
 참 으 무 로 씨 결 실 하 너 니 라 사 람 이 불 을 해 고 그 름 스 로 씨 덩 투 며 후 상  
 아 래 두 디 안 켜 오 직 화 디 우 에 노 우 문 들 어 오 년 자 로 하 여 금 그 밧 출 보  
 개 하 미 라 감 춘 거 시 닷 타 나 디 안 으 미 업 고 은 밀 한 거 시 나 터 아 디 못 하  
 미 업 스 니 라 고 로 그 듯 년 비 를 삼 가 하 라 잇 년 자 는 더 주 고 업 년 자 는 곳  
 그 신 각 잇 년 비 썬 지 아 사 가 미 니 라 하 터 라 예 수 의 오 맘 파 동 성 이 나  
 아 와 시 터 금 갖 가 이 못 하 문 사 람 만 으 물 인 하 미 터 라 후 이 고 하 여 같 으

十





나 혼문 예수 일즉 샹귀를 명하 여 그 사람이 오미라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억제 하미 열어 번에 비록 쇠사슬과 고랑으로 써 쓰우  
고 되키 되고 게 갓춘 것을 본 귀신에게 들어 에 쫓추미 된 디라 예수  
무리 갈으 되 네 무순 일을 이 나 혼니 갈으 되 군이라 혼문 귀신 든 자 만으  
미라 예수 으께 구하 여 명하 여 디 옥에 들어 가 디 안 깨 하 라 혼 터 니 거  
괴 도 야 지 무리 산에서 먹 거 늘 들어 가 물 구 하 미 허 혼 니 모 둔 귀 신 이 이  
여 그 사람이 게 나 아 와 도 야 지 게 들어 가 니 그 무리 산 견 들 미 기 로 말 아  
볼 여 호 슈에 들어 가 싹 디 니 목 인 이 혼 년 비 를 보 고 즉 시 말 아 나 성 시 에  
고 혼 니 못 사람이 나 아 와 혼 년 비 를 보 려 하 여 예수 으께 나 아 가 귀 신  
나 아 온 비 사람을 만 니 니 옷 슬 입 고 턴 연 이 예 수 의 발 아 레 안 젓 거 늘  
못 사람이 무 서 워 혼 미 본 자 귀 신 붓 툄 자 어 듯 궤 구 완 어 드 무 로 써 고 혼  
니 키 리 신 사 방 에 못 사람이 다 그 처 나 기 를 구 하 문 무 서 우 미 심 혼 물 인  
하 미 라 예수 비 여 올 나 돌 아 가 년 테 귀 신 나 아 온 차 함 게 혼 기 를 구 하  
니 예 수 보 니 여 갈으 되 너 집 에 돌 아 가 하 느 님 이 네 게 흥 한 비 로 써  
사 람 으 게 고 혼 라 혼 니 테 이 여 가 오 온 고 올 예 서 예수 자 기 를 위 하 여



행한비를페티더라 예수 돌아올새여못사람이영접호문기뒤리를  
인호미라한사람의일은이로니이회당치태한자라와서예수의  
발아래업태여그집에닐으물구호문외살이나이열들인테거의죽어  
가물인호미라 예수 힘쓸새여못사람이용위호년태한베인이더하  
증열두히여의연으로위호여그산업이모진호교능히곳티미업슨자  
라예수의 뒤여나아가그옷단을민지니더하중이곳머즌더라 예수  
갈으되귀가나를민지니호호니다업너어다호년테피들파밧함께  
호년사람이갈으되냉감못사람이빅빅호여주를 미너이다호니예  
수 갈으되나를민지년자이스니너능호미나로말우야나아오물씨  
닷노라호니베인이자기로능히숨기더못쓸출을알고셀며닐으려업  
더여못빅성의압풀당호여민진연교와다못즉시나은즈스로써호호  
니닐너갈으되베인아베밧으미너를구완호니안연이돌아가라호터  
라말호씨여회당치태한자의집으로오년자갈으되넘지살이죽어스  
니선성을입부게말나 예수 듯고닐너갈으되무셔워말고오직밧은



라 말 할 처 여 회 당 친 데 한 자 의 집 으 로 오 년 자 같 으 되 남 지 살 이 죽 어 스  
 니 년 생 을 임 부 가 말 나 예 수 두 고 보 너 같 으 되 무 서 임 말 고 오 직 밧 은

죽 네 의 살 이 구 완 을 어 드 리 라 호 고 집 에 들 이 갈 처 여 피 들 파 야 곱 과 요  
 인 니 파 밧 네 의 부 모 회 여 는 다 른 사 람 은 들 어 가 다 못 호 게 호 니 못 사  
 람 이 을 고 통 곡 호 년 디 라 예 수 같 으 되 올 디 말 나 네 이 죽 디 인 꼬 잔 다  
 호 니 못 사 람 이 비 우 수 문 그 죽 으 몰 알 미 라 예 수 네 이 의 손 을 잡 고 불  
 너 팔 으 되 네 이 야 놀 어 나 라 호 미 그 녕 혼 이 회 복 호 여 즉 시 날 어 나 거 늘  
 명 호 여 밤 을 주 라 호 니 그 부 모 피 이 네 기 년 디 라 예 수 경 게 호 여 힘  
 한 빈 로 쓰 사 람 으 게 고 티 말 나 호 터 라

누 가 데 구 장

예 수 열 두 테 자 를 불 너 능 함 파 권 세 를 주 워 모 든 귀 신 을 억 제 호 며 병  
 을 곳 티 게 호 고 보 너 여 하 느 님 의 나 라 을 보 호 며 연 약 호 물 닳 게 호 며  
 불 너 팔 으 되 길 에 쓰 년 것 파 혹 디 광 이 파 혹 자 루 파 혹 낭 식 파 혹 은 파 혹  
 두 벌 옷 슬 가 지 디 말 고 너 의 들 어 가 년 비 집 에 거 호 다 가 또 한 거 괴 셔 셔  
 나 라 너 의 를 뒤 접 디 안 년 자 잇 거 든 그 고 을 을 셔 날 셔 여 발 에 문 주 를 털  
 어 간 증 을 삼 우 라 호 니 때 자 이 어 나 아 가 두 루 각 촌 에 힘 호 여 복 음 을 연



흥며 병을 곳터라 분봉군해릇이 이 흥한 비모든 일을 듯고 심이 듀데  
 흥문혹말이 요안니가 죽우 무로다 시닐 었다 흥며 후이니 야가 낫타 낫  
 다 흥며 후넷션다 한나이다 시닐 었다 흥물인 흥미라 해릇이 같으되 요  
 안니를 니이 무버엿던테이 제또이런말을 들으니 이 엿던한 사람이 노  
 흥고 보고자 흥터라 보닌자 돌아가 흥한 비로써 예수 오게 흥니 이  
 여디리고 사사라이 한성에 가니 일음은 비식다라 못사람이 알고 좃거  
 늘디 접 흥여 하느님의 나라 오로써 말 흥고 무론의 연 쓸자를 곳터  
 라 날이 저물기 여 열두테자 나아가 같으되 청컨던 못사람으로 하여금  
 두루 촌니에 가 누숙 흥고 밥을 엿게 흥소서 우리어귀는 들여이니이다  
 흥니 같으되 너의 밥을 공급 흥라 같으되 우리 안약이 못사람을 위 흥여  
 가 먹을거슬 사디 안으면 가우 썩다 솟기 흥고 기두리니이다 흥문그사람  
 이 디강오 천이라 예수 테자 게 같으되 못사람으로 흥여 금세를 지여  
 안지 올네 뒤 썩여 쉬인식 흥라 흥니테자 하갓티 흥 흥여 다 안지 우리에  
 수 썩다 솟기와 흥고 기두리를 취 흥여 하늘을 울이려 축슈 흥고 썩여 테

자... 주... 영... 여... 금... 사... 람... 이... 게... 노... 니... 다... 빈... 부... 유... 게... 역... 고... 그... 남... 운... 부... 수... 려...





수... 다... 고... 기... 를... 하... 여... 하... 를... 을... 어... 려... 속... 수... 고... 데... 여... 데

자를 주워하여 금뭇사람은 게노우니 다 빈 부우게 역고 그 남운부 수려  
 기를 거두워 열두 광지에 치우니라 마름 함자셔 비년 데 데 자 함게 하니  
 예수 무려 같은 되 못 사람이 나를 귀라 하니 대답하여 같이 되 밧 텨  
 비를 힘히던 요 안니라 하니 흑이 니 아라 하니 흑 벗 선 데 에 한 나 이 다 시  
 늘 엿 다 하니 다 같이 되 오직 너 의 는 나 를 귀라 하니 피 들 이 디 답 하  
 여 같이 되 하느 님 의 키 리 스토 니 이 다 하니 예수 경 게 하 여 일 노 써 사  
 람 으 게 고 티 말 나 고 또 같이 되 인 자 반 드 시 만 이 히 를 밧 아 당 노 와 모  
 든 제 사 당 파 선 비 의 비 린 비 되 야 죽 이 물 보 았 다 가 사 흘 만 에 늘 갓 다 하  
 고 또 못 사 람 으 게 늘 너 같이 되 만 일 나 를 쫓 고 자 하니 맛 당 이 몸 을 돌 아  
 보 디 안 고 날 마 당 그 습 지 를 을 지 고 나 를 쫓 추 라 그 성 명 을 구 완 고 자 하  
 년 자 는 장 차 힐 고 오 직 나 를 위 하니 그 성 명 을 힐 은 자 는 장 차 구 완 하니  
 니 라 만 약 사 람 이 텨 하 을 엿 고 스 서 로 힐 으 며 망 하니 무 슨 니 의 하니 미 이  
 스 리 요 무 룬 나 파 밧 님 의 도 로 써 붓 구 러 워 하니 인 자 가 자 귀 와 텨  
 부 와 밧 텨 사 의 영 화 로 써 강 님 흘 새 여 또 한 이 사 람 으 로 써 붓 구 러 워 하니



리라 님실 노너으게 말하더니 여긔선 자멧치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  
라를 보리라 하더라 이 말안 후 칠 팔 일 만에 예수 피들과 요인 님 피야  
꿈을 더리고 산에 올라가 빌디 하더니 빌디 여용 모가 변하고 그 옷시 결  
빚 하 여 빚 출 놓 고 두 사람이 더 부러 말하니 곳 모쇼와 이니 아라 영요로  
써 밧 타나 데 장차 여 루사 령에서 죽 음 일 우물 의 논 하 년 데 피 들 파 밧 함  
게 잇 년 자 곤 하 여 졸 다 가 셔 여 그 영화 파 또 두 사람이 한 게 서 스 돌 보 고  
두 사람이 새 날 셔 여 피 들 이 예수 게 빌 디 같 으 되 슈 우리 여 기 이 스  
미 도 우 나 나 를 용 남 하 여 막 세 간 을 지 을 데 한 나 은 주 를 위 하 고 한 나  
은 모 쇼 들 위 하 고 한 나 은 이 니 아 를 위 하 갓 다 하 되 그 러 나 스 서 로 빌 으  
년 비 를 아 디 못 하 더 라 말 하 셔 여 글 음 이 이 서 더 퍼 몸 이 글 음 에 들 어 가  
년 데 무 셔 워 하 니 글 음 속 으 로 부터 솔 이 이 서 같 으 되 이 는 너 의 사 랑 하  
년 아 들 이 니 너 의 들 으 라 하 더 라 솔 이 발 하 미 예 수 함 자 이 스 돌 보 고  
테 자 당 시 여 잠 잠 하 고 본 비 로 써 사 랑 으 게 고 디 안 터 라 이 튼 날 산 에 너  
리 미 열 어 사 랑 이 영 접 하 년 데 가 운 데 한 사 랑 이 불 너 같 으 되 션 성 님 구

하 나 나 의 아 리 모 니 아 보 소 셔 이 는 외 아 들 인 의 구 세 이 보 스 더 감 락 하



데 자당 시여 잠잠하고 본비로써 사람에게 고터 안터라 이튼 날 산에 너  
 기어 올라 가니 잠잠하고 본비로써 사람에게 고터 안터라 이튼 날 산에 너

흥너니 너의 아들들 돌아보소서 이는 외아들인데 귀신이 북터 갑작이  
 불우적이 고되랄고며 더 품을 혼니게 하여 심이 상케 하고서 나기 실노  
 어렵기로 너 주의 데 자게 쫓기를 구하되 능티 못하더이다 하니 예수  
 같이 되밧으미 업고 피역한 세상이 너의 를 합게 하며 너의 를 찰년  
 더가 열미나 네 아들들 더리 고여 고라 하더니 올쎄여 귀신이 쎄우려  
 터고 더랄고게 하거늘 예수 더러운 귀신을 치망하여 아희를 곳터 그  
 아비게 들니 나뭇사람이 하느님의 크물 놀나더라 뭇사람이 예수의  
 행한 비를 괴괴이 배길 쎄여 예수 데 자게 볼너 같이 되이 말을 너의 귀  
 여간 더하라 인자 장차 사람의 손에 부팀 보물인 하니라 데 자의 말을 아  
 디 못하문은 밀하여 쎄닷디 못하나 그려나 감이 못디 못하더라 데 자 떨  
 어서로 귀가 그 노의 논하니 예수 그마음에 의논하물 보고 한나 어린  
 아희를 취하여 껌테 두고 같이 되무론 너의 일음을 취하여 이 어린 아희  
 를 더접하년 자는 나를 더접하미요 또 나를 더접하년 자는 나 보년 이를  
 더접하미니 너의 등지극 거져 근자가 크니라 요인 너 볼너 같이 되션 성



님우리한사람이주의 일음으로써귀신쉴추를보고금호문그우리  
를좃더안으미니이다예수 갈으되금티말나우리를티다안년자는  
도우미라하더라마즘예수 를거들날이거의닐으리예루사렘예  
녕가려호고사람을압셔보이니이여산마니아한마음에들어가위호  
여예비홀나넌테마을사람이더접다안으문그형호미에루사렘향호  
물인호미라테자야곱파요안나가이를보고갈으되주 우리로불을  
불너하늘노너려벧적이니아의형한비갓터데를멸꼬자호너잇가에  
수 돌아보고최망호고이어다른마을노가터라길에형홀셔여후이  
닐너갈으되주 무론어디를가시던더너좃갓너이다호너에수 갈  
으되여우도공기잇고공동에사이드깃시이스되오직인자는멀이들  
곳이업다호고또한사람으게닐너갈으되나를좃초라호니갈으되나  
를용납호여민저가아밤의장사호게호소서호니갈으되죽운자를맛  
터그죽운자를장사호고너는가하느님의 나라올던호라호터라또  
한사람이갈으되주 너주를 좃출디니다못나를용납호여민저집

사람을하루개호소서예수 갈으되무론산마니아한마음에들어가위호



사람을 하덕게 하소서 예수 같으되 무릎손에 붓심을 잡고 뒤를 돌아  
보던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부당하니라 하더라

누가 데 슴 장

그 후에 주 또 칠십인을 세워 들식 보이며 자기가 고자 하던 비모든 고  
을 파모든 싸에 날으게 하며 날너 같으되 거둘 거 손만으되 싸군이 적으  
니 맛당이 동주게 구하여 싸군을 보이며 그 거 두 번째 나야 게 하리니  
가라 너의 를 보던 거 시 양의 식기 일이 물이 에 들어 가 년 것 갓 트니  
전 더 파 흑자 루 파 흑신을 가지 디 말며 길에서 사람이 게 문 안티 말고 들  
어가 년 비 집에 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 하라 하여 만 약 거 기 평안 하  
년 사람이 이스면 너의 평안이 데게 누고 안인 즉 너의 게 돌아 갈디니  
그 집에 거 하여 옛 투 년 비를 먹으며 마 시고 싸군이 그 갑 슬어 드미 합당  
하 니 이 집으로 데 집이 음디 말고 들어 가 년 비 고을 에 사람이 너의 를 뒤  
접한 즉 너의 암 폐 버 쏘 비 를 먹고 그 가운데 병하 년 자 잇 거 든 곳 티 고  
또 못 사람이 게 고 하여 같으되 하느님의 나라이 너의 게 갓 가 왔다 하

그 후에 주 또 칠십인을 세워 들식 보이며 자기가 고자 하던 비모든 고  
을 파모든 싸에 날으게 하며 날너 같으되 거둘 거 손만으되 싸군이 적으  
니 맛당이 동주게 구하여 싸군을 보이며 그 거 두 번째 나야 게 하리니  
가라 너의 를 보던 거 시 양의 식기 일이 물이 에 들어 가 년 것 갓 트니  
전 더 파 흑자 루 파 흑신을 가지 디 말며 길에서 사람이 게 문 안티 말고 들  
어가 년 비 집에 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 하라 하여 만 약 거 기 평안 하  
년 사람이 이스면 너의 평안이 데게 누고 안인 즉 너의 게 돌아 갈디니  
그 집에 거 하여 옛 투 년 비를 먹으며 마 시고 싸군이 그 갑 슬어 드미 합당  
하 니 이 집으로 데 집이 음디 말고 들어 가 년 비 고을 에 사람이 너의 를 뒤  
접한 즉 너의 암 폐 버 쏘 비 를 먹고 그 가운데 병하 년 자 잇 거 든 곳 티 고  
또 못 사람이 게 고 하여 같으되 하느님의 나라이 너의 게 갓 가 왔다 하



고 들어가 년 비 고 을 에 사 람 이 너 의 를 뒤 점 하 디 안 은 즉 그 거 리 에 나 아  
와 말 하 되 우 리 게 올 운 문 주 새 지 셔 러 너 의 를 주 리 라 하 고 다 못 하 느 님  
의 나 라 이 너 의 게 갓 가 운 줄 을 알 나 하 여 라 너 의 게 말 하 너 니 그 날  
에 소 도 모 의 형 별 이 이 고 을 보 담 건 텅 즉 하 리 라 직 화 라 너 의 죄 라 신 아  
직 화 라 너 의 비 신 디 야 너 의 가 운 데 서 형 하 비 능 한 일 을 만 약 투 로 와 세  
돈 에 서 형 하 여 시 면 테 일 즉 이 비 과 직 를 쓰 고 안 저 회 기 하 여 시 리 라 다  
못 판 죄 를 당 하 면 투 로 와 시 돈 의 형 별 이 너 의 보 담 건 텅 즉 하 리 라 가 빌  
남 아 너 의 하 늘 갓 티 놓 갓 티 나 장 차 디 부 에 셴 어 티 라 너 의 를 듯 년 자  
는 나 를 들 으 미 요 너 의 를 슬 이 여 하 년 자 는 나 를 슬 이 여 하 미 요 나 를 슬  
이 여 하 년 자 는 나 보 님 이 를 슬 이 여 하 미 라 하 니 칠 습 인 이 즐 거 워 들 아  
와 같 으 되 주 주의 일 음 으 로 써 귀 신 새 지 우 리 게 항 복 한 다 하 니 예  
수 같 으 되 너 사 람 이 변 기 갓 티 하 늘 노 북 터 셴 어 디 콜 보 와 시 너 의  
를 비 임 과 전 같 을 발 부 며 원 슈 의 능 하 늘 여 제 하 년 천 세 를 주 워 반 드 시  
히 가 업 슬 이 라 그 러 나 귀 신 이 너 의 게 항 복 하 무 로 즐 거 워 말 고 다 못 너

의 임 과 전 같 을 발 부 며 원 슈 의 능 하 늘 여 제 하 년 천 세 를 주 워 반 드 시  
히 가 업 슬 이 라 그 러 나 귀 신 이 너 의 게 항 복 하 무 로 즐 거 워 말 고 다 못 너





타이를 잉한즉 사너니라 하니 데스서로 올우물 칭하고 자하여 예수께  
 빌니 같으되 누가 너의 근체요 하니 예수 같으되 한 사람이 예루사  
 렘으로 부터 여리고에 너려오다가 도적을 만녀 그 옷을 앗고 또 흑게  
 터거의 죽게 하여 버리고 갓년 데마 즘한 제사 이길 노너려가다가 보고  
 마주더너가고 쓰니 위사람이 그곳에 불러나아가 보고 또 마주더  
 너가 되사 마라한 사람이 히하여 그 싸에 불러 보고 어엿비벼겨 압페  
 갓가이 하여 기림과 솔노써 그 상한 곳에 부워 싸미고 자괴 즘심으로 써  
 뒤우고 인도하여 직 텬에 불러들여 보고 이튼 날 힐홀적 에 돈 두 돈을  
 취하여 직 텬 주인을 주워 같으되 아사람을 돌아 보되 부비가 만약 더 만  
 으면 너 돌아올 쟈여 갑푸리라 하여 시니 네 뜻에는 이 세 사람이 누가 도  
 적 만 나자의 근체가 되갓느냐 하니 같으되 어엿비벼긴 자가 기니이다  
 하니 예수 같으되 네가 갓히 히라 하더라 힐홀 쟈여 예수 한 마  
 을 에 들어가니 한 베인의 일음은 말다 라 마자 짐에 들어가니 데의 동성  
 일음은 마리아라 예수의 발아테 안저 그 말을 들너 말다 엇 두년

이 만 아삼이 몇대 예수께 나았을 때에 너의 동성이 사함을 주실 줄을





Corean

St Luke

Rev. J. Ross

일이만아심이밧바 예수게나와같오되너의동성이나함자일을엿  
투라년테 주싯하디안년잇가청컨딘명하여나를돕게하소서 예  
수같오되말다말다야네네며하여번거하년거시싯티만으나그러나  
쓸빈는한나이라하문마리아이션한직업을퇴하여곳앗디안으미라

누가데습일장

예수한곳에서빌터니다하리한테자블너같오되 주청컨딘우리  
를빌기를갈으쳐요안너그테자갈으칠갓티하소서하니갈오되너의  
빌새여늘오되아바니아아바니일음으로성을삼게하시며나카이넘  
하소서쓰년비양식을날마당주시고우리죄를샤하여주시문우리또  
할우리개진자들샤하여주미이다우리를미혹케인도티말으소서  
하여라또갈오도만약너의등에한사람이벗이이서적밤에나아와갈  
오되벗아청컨딘섹세키만나를썩이라너이벗이길노부터나아왔년  
테너가공급할거시업나 면테안게셔디답하져갈오되피롬베말나  
너문늘이무닷아델파닉가상게이스니능이브어나너를주더못하



갖다 하리니 너의게 말하 너니 비록 벗의 연교로 불러 주디 안지고 간  
 절호 돌인 하 여늘 어 쓸 비록 응 하 여 주리라 니 도 너의게 말하 니 말한  
 즉 너의 틀 주고 차 존 즉 만 되고 문을 쉼 단 즉 열 어 너의 록 줄 리 니 물 운 구  
 하 년 자는 잇고 찻 년 자는 만 되고 쉼 디 년 자는 열 붙 디 니 차 너의 흥 계 의  
 비 된 자 귀 가 그 아 들 이 석 을 말 니 년 데 돌 을 주 며 고 기 를 말 니 년 데 고 기  
 디 로 비 임 을 주 며 개 란 을 말 니 년 데 전 갈 을 줄 야 너의 비 록 약 하 너 도 요  
 운 물 건 으 로 써 직 식 줄 줄 을 알 면 호 물 며 텃 부 야 형 신 으 로 써 말 니 년 자  
 를 주 디 안 을 야 하 터 라 예 수 한 귀 신 을 쫓 추 니 이 버 버 리 라 귀 신 이 나  
 오 미 버 버 리 말 하 니 못 사 람 이 괴 괴 이 베 기 년 데 그 동 에 후 기 테 귀 왕 빌  
 시 불 을 빙 자 하 여 귀 신 을 쫓 년 다 하 고 쏜 후 이 시 염 하 여 하 늘 의 덩 도 로  
 써 모 이 물 구 하 니 예 수 그 쫓 을 알 고 볼 너 같 으 되 물 운 나 라 이 서 루 다  
 투 면 반 드 시 열 호 고 집 이 서 루 다 투 면 줄 어 디 너 니 만 약 사 람 이 서 루 다  
 투 면 그 나 라 이 었 디 써 설 야 너의 말 이 니 가 빌 시 불 노 써 귀 신 을 쫓 년 다  
 하 니 너 가 만 약 빌 시 불 노 써 귀 신 을 쫓 추 너 의 자 메 비 는 뒤 루 써 쫓 너

나고로터 너의를 관 조 하 리 라 그 리 너 니 만 약 하는 남 의 손 으 로 써 귀



나고로데 너의를 관최 하리라 그러니 만약 하느님의 손으로 쓰여  
 신을 뜻춘즉 하느님의 나라이 너의 개념 하엿더니 라 장사가 감류  
 고 집을 덕 존 즉 잇년 거사다 무사 하되 오직 날 닐으려 이기면 곳 그  
 밋년 비 감류 를 앓고 그 직 물을 논우 너 나로 터 부러 함게 안은 차는  
 나를 더 덕 하미요 나로 터 부러 거 두디 안은 차는 헤 터 리라 하 니 더  
 귀신이 사람을 써나 사막에 행 하 여 쉬이 기를 찾다가 만 너 디 못 고 즉  
 시 갈으 되 너 나 온 비 집으 르 들어 가 리라 하 고 날으 리 그 정 제 이 슈 리 하  
 물 보고 이어 가 또 날 굽 귀신 저 보 담 악한 자 를 더 리고 다 들어 가 거 하 니  
 곳 그 사람의 너 좋 이 전 보 담 더 욱 심 하 더 라 말 흘 써 여 한 베 인 이 솔 이 를  
 더 갈으 되 주 를 나 온 이 와 견 맥 인 자 가 복 이 라 하 니 예 수 갈으 되 하  
 느님의 도 를 듯 고 더 키 년 자 의 복 이 더 크 다 하 더 라 못 사 람 이 모 인 쎄  
 여 예 수 비 르 소 말 하 여 갈으 되 이 세 상 은 악 한 데 당 도 를 구 하 니 선 디  
 요 나 의 당 도 외 여 는 당 도 로 써 보 이 디 안 이 하 갓 다 요 나 니 니 위 사 람 으  
 깨 당 도 됨 갓 디 인 자 또 한 이 세 상 게 당 도 되 리 라 관 최 하 쎄 여 남 방 베 왕

두면 나라이 엿다 써 설야 너의 말 이 너 가 빌 시 불 노 써 귀 신 을 뜻 춘다  
 하 나 너 가 만 약 빌 시 불 노 써 귀 신 을 뜻 춘다 의 가 의 비 는 너 는 세 계



이 장차 날 어 세상 사람을 죄 주 문 데 더 극 으 루 부터 와 소 노 몬 의 더 헤 를  
 들 으 미 니 하 물 며 소 노 몬 보 담 큰 자 여 기 잇 너 니 라 판 죄 흘 셔 여 니 니 위  
 사 람 이 장 차 날 어 이 세 상 을 죄 주 문 데 요 나 의 보 이 무 로 써 회 기 하 미 니  
 하 들 며 요 나 보 담 큰 자 여 기 잇 너 니 라 사 람 이 불 을 혀 그 욱 한 데 와 말 아  
 데 두 디 언 꼬 화 디 에 노 우 문 들 어 오 년 자 로 그 빛 출 보 게 하 미 라 몸 에 등  
 썬 은 눈 이 니 너 의 눈 이 만 약 발 근 족 오 온 몸 이 발 썬 흘 이 운 족 몸 이 어 들  
 너 니 고 로 너 의 안 약 빛 치 어 두 올 가 조 심 하 라 만 약 너 의 몸 이 발 가 일 호  
 도 어 두 우 미 업 손 족 등 썬 빛 치 네 게 빛 치 우 년 것 갖 티 온 전 이 발 그 리 라  
 하 터 라 말 을 셔 여 바 리 시 인 이 합 게 밥 먹 으 려 청 하 민 예 수 들 어 가 안  
 즈 니 그 바 리 시 인 이 민 저 손 싯 디 안 꼬 먹 으 돌 보 고 피 괴 이 네 기 니 주  
 빌 너 같 으 되 너 외 바 리 시 인 은 잔 파 반 의 빛 견 은 정 이 하 고 오 직 너 의 안  
 약 인 족 토 식 파 약 으 셔 취 와 시 니 미 려 한 자 야 그 밧 갖 틀 지 은 자 쏜 한  
 그 안 약 을 짓 디 안 앗 너 나 오 직 담 운 비 로 써 구 제 한 족 너 의 정 티 안 으 디  
 업 스 니 라 직 화 라 너 의 바 리 시 인 아 너 의 박 하 와 유 향 과 모 든 처 소 를 열

어 그 한 나 을 달 이 고 공 도 와 하 는 밤 사 람 하 를 회 하 는 나 의 정  
 어 한 나 을 달 이 고 공 도 와 하 는 밤 사 람 하 를 회 하 는 나 의 정  
 어 한 나 을 달 이 고 공 도 와 하 는 밤 사 람 하 를 회 하 는 나 의 정



그 영을 가다 영 잇는 내 오직 담은 비로써 구제 한 죽 너의 정 티 안 으 디  
엄스 너라 직 화라 너의 바 리 신 인 아 너의 박 하와 유 향 과 모 르 지 스

에 그 한 나 을 달 이 고 공 도 와 하 느 님 사랑 흥 들 께 하 나 이 는 너 의 맛 당  
어 흥 흥 비 요 기 도 가 이 안 이 티 못 흥 거 시 라 직 화 라 너 의 바 리 신 인 아 너  
의 는 회 당 예 슈 자 와 결 이 예 서 인 사 를 사 랑 흥 너 니 라 직 화 라 너 의 는 새  
던 무 됨 갓 트 니 그 우 예 흥 흥 년 자 가 아 디 못 흥 너 니 라 흥 니 한 법 갈 으 치  
년 스 승 이 날 너 같 으 되 셴 싱 님 이 를 말 흥 흥 년 거 시 또 한 우 리 를 휘 방 한 다  
흥 니 같 으 되 직 화 라 너 의 법 갈 으 치 년 스 승 아 너 의 는 맛 기 열 여 운 짐 으  
로 써 사 랑 으 게 맞 티 고 자 기 는 한 손 가 락 으 로 도 믿 지 디 안 으 니 직 화 라  
너 의 야 너 의 는 셴 디 의 무 됨 을 서 우 되 너 의 조 상 은 죽 여 시 너 의 이 갓  
티 간 증 흥 흥 조 상 한 비 를 도 이 베 기 니 데 는 죽 이 고 너 의 는 그 무 됨 을 서  
우 미 라 고 로 하 느 님 의 디 헤 여 볼 너 시 되 님 디 와 맛 몸 데 자 르 데 의  
게 보 너 면 흥 죽 이 며 흥 군 박 흥 리 니 창 세 써 으 무 로 흥 은 비 셴 디 의 피 가  
다 이 세 디 여 돌 아 오 고 곳 아 빌 의 피 로 부터 산 가 니 아 성 연 단 사 이 예 죽  
운 피 새 지 브 을 디 라 님 실 노 너 의 게 말 흥 흥 니 다 반 드 시 이 세 디 게 차 즈  
리 라 직 화 라 너 의 법 갈 으 치 년 스 승 아 너 의 가 디 식 의 결 쇠 를 아 사 스 서





품에 사디안너냐 그리나 하느님의 암페셔 그한나을또한너안의  
하고 곳니의 열이 불도 또한 수가 있디나고

다한참사 이보담귀하니라 너의게 불은너니 무튼나를사람암페셔  
아년자를인자가또한반드시테를하느님의 사자암페셔알고나를  
사람의암페셔비반흐년자를반드시하느님의 사자암페셔비반흐  
리라 무튼인자를홍닐은년자는가이죄를면흐되오직성신을욕흐년  
자는면티못하니라 사람이너의를더리고 회당파관당파권세잇년  
자의암페셔를써여엇디써발명흐며 무어스로서말홀고네티말나  
그씨여성신이너의맛당이말할비로써갈으치리라 못사람에한나이  
갈으되선성님청견던너의동성을명흐어나로더부러산업을논우게  
흐소서하니예수 갈으되이사람아귀가나를써워너의게공사흐며  
산업논우년자를삼우라흐더냐흐고이여못사람게날니갈으되삼가  
탐심을금흐라 사람의성명이그가산년한데잇디안으니라흐고또  
비사로서말흐여갈으되한부자의밤테소출이풍성흐미스서로심각  
흐여갈으되너가이곡석디릴곳이업스니장차어디흐리요흐고또갈  
으되너이갓트니너의곳간을헐고큰거슬써워써너이모든곡석과물



건을간덕하리라하고또너마음과말하갓다마음아너물건이만아열  
 어히쓸거슬싸아시니가이수이며음식하고늘나하되오직하느님이  
 볼너갈오되미련한자야이바음에너의목숨을달닌즉예비하비가  
 뉘게잇갓너냐직물을몸에만싸꼬하느님 오게는가난한자또한이  
 갓트니라하고이여데자게갈오되고너의게닐오너니목숨에무  
 어스로써먹으며몸에무어스로써입을세넬테말나목숨이냥식보  
 담귀하고몸이의복보담귀하나라가마귀를식각하라시무더도안꼬  
 거두더도안꼬고방도업고곡간도업서도하느님이 치너너의는  
 사이보담얼마나귀하갓너냐또너의뉘능히넬네로써기에한자올터  
 하라지극기차근거슬오이려능티못하거던엇디그나문거슬넬네하  
 라나리셋출싱각하라엇덧게차리나피롭더도안꼬방적도안이하여  
 도너의게닐오너니소노몬이그모둔영화할씨여입은거시오이려  
 이한셋만갓디못하나라너의적게밋년자야꿀은오늘들어에잇다가  
 너일은화리에터디너니하느님이 꾸미미이갓거늘하물며너의냐

너의엇다써먹으며엇다써마시물구터알고도넬네로써  
 외방사람이구하건너의모든물건을너의게터하리라무서워할나너  
 남의나를구하건너의모든물건을너의게터하리라무서워할나너  
 나라고이로써너의주기를갓하너나라잇년거슬과라구제





너일은화리에더더너니하느님이 무미미이갓거늘하물며너의가

너의엇디써먹으며엇디써마시물구티말고또넬비티말나이다세상  
외방사람이구호년비라오직년부는 너의쓸거술아너니다못하느  
님의 나라을구한즉이모든풀건을너의게더호리라무셔워말나너  
의년부 나라으로써너의주기를갓거호너니라잇년거술과라구제  
호고자괴를위호여쳐디안년주머니와다호디안년죄물을하늘에  
예비호라도적이갓가이못호고솜이먹디안년곳이라죄물잇년비에  
마음이또한잇너니라너의혈이를묵고등불을혀고그주인이잔체집  
으로부터돌아오물기더년자갓티호여널으러문을쉬딜면즉시열  
나주인이널으러그씨물보고이종달이복이잇다호리라너실노너의  
게널오너니주인이반드시씨를묵고테의로하여금듯게안지우고압  
패셔성기리라혹이경에널으며혹삼경에널으러그이갓트물보면이  
종달이복이잇다호리라만약집주인이도적이어느셔여널을줄을알  
면반드시셔여그집을구녕썩루디안게호리니이를너의알나고로너  
의또한예비호여뜻안이호셔여인자널으물인호라피들이갈으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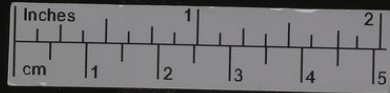


물삼너냐너너으게말하너니안이라오직하여금닷투게하미니이제

파닷투고이비가아들파닷투너아들이이비파닷투며오맘이쌀파닷  
투며쌀이오맘파닷투며시오맘이메니리파닷투며메니리가시오맘  
파닷투리라하고이여웃사람게닐너갈으되구름이세로부터닐물보  
고너의말이비오리라하면파연그러하고바람이남으로불물보고너  
의말이더우리라하면또한그러하너니거죽션을하년자야너의턴디  
의괴상을분변홀줄을알고엇디이세분변홀줄을아디못하랴또엇디  
맛당홀비를스서로아디못하너냐너를송사하년자로함게파당으게  
나아갈적에길에서맛당이마음을다하여노우물어더테너를형판으  
게슬면형판이너를아역으게벗터옥에가두물면하라너네게말하너  
니호말도감디못하고결단코거키나디못하리라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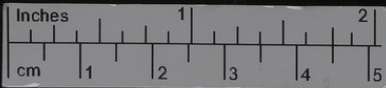
누가데습삼장

그셔여사람이피나토가가니너사람의피루써테제틀에석그물고하  
니예수닐너갈으되너의뜻에가니너사람이이갓타뵈년거시못가  
니너사람보담더죄가있너냐너너의게말하너니안이라만약너의회



기를 안으면 또 한 다 이 갓티 망허리 라 또 시 노암의 탐물 어 터 열야 들사  
 람을 죽여 시니 너의 뜻에 못여 루사 람에 거 하사 람 보 단 터 죄를 져 너 나  
 너 너의 게 말 허 너 니 안 이 라 만 약 너 의 회 기 를 안 으 면 또 하 이 갓티 망 허  
 리 라 허 고 이 여 비 사 를 버 푸 리 같 으 되 한 사 람 이 포 도 위 에 무 화 파 남 기  
 잇 년 데 와 셔 열 음 을 구 허 다 가 었 디 못 허 고 동 인 게 너 같 으 되 니 삼 년  
 을 와 셔 열 음 을 이 무 회 파 남 게 구 허 여 었 디 못 허 겨 시 니 석 을 거 시 었 디  
 짜 만 잡 으 리 요 허 니 뒤 답 허 여 같 으 되 주 인 님 금 년 에 다 시 용 남 허 여 너  
 돌 우 과 고 걸 금 을 주 워 흑 열 음 이 밋 치 면 거 니 와 안 이 열 니 면 석 으 소 셔  
 허 더 라 사 밧 일 게 한 회 당 게 셔 같 으 치 년 데 한 부 인 이 실 음 허 년 디 습 팔  
 년 에 곱 당 이 능 히 페 디 못 허 년 자 이 스 니 예 수 보 고 볼 너 같 으 되 부 인  
 아 너 병 을 노 우 라 허 고 이 여 손 을 뒤 이 니 부 인 이 즉 시 혈 이 를 꿰 고 영 화  
 를 하 느 님 게 돌 니 더 라 회 당 치 데 한 자 예 수 사 밧 일 에 병 곳 티 물 보 고  
 성 이 나 못 사 람 게 볼 니 같 으 되 일 허 년 거 시 었 신 데 그 날 에 와 셔 곳 티 물  
 구 홀 거 시 디 사 밧 일 에 올 티 안 타 허 니 주 같 오 되 거 죽 셴 을 허 년 자 달

허 년 자 못 구 리 워 허 니 못 사 람 이 그 모 든 광 명 한 일 허 물 보 고 주 시 줄 거  
 워 허 니 고 로 말 이 되 하 느 님 의 사 람 이 무 엇 것 트 고 너 거



어너의사밧일에누가쇼와나구를공이에서푸러잇슬어물엿이디안  
 으라이부인은암라함의자손이사란의미운비된더습팔년위테사밧  
 일이라고맛당이이얼민테푸디안으라예수 이를말하미모둔디덕  
 흥년짜붓구러워하니뜻사람이그모둔광명한일하물보고즉시즐거  
 워하니고로같이되하느님의 나라이무엇갓트뇨너무어스로써비  
 하리요이한알거지종지갓트니사람의취한비되여그동산에심은즉  
 자리여큰남우를일우미공동에사이가지여머문다하고또같이되  
 너무어스로써하느님의 나라을비하랴누룩을한베인이가져서말  
 진가루에석거고루이셴임갓다하더라예수 성찬을디너여같이치  
 고예루사렘을향하여흥년테혹이닐니같이되구완을엇년자적으  
 나잇가하니같이되힘을다하여조분문으로나아가라너더의게말하  
 너니나가가기를구하여엇더못할자만으리라밧집주인이닐어문을  
 맛으미너의밧게서서문을쇄달니닐으되주아 주아 문을열으소  
 셔한즉데대담하여같이되너의가어디로오년키아디못하갓다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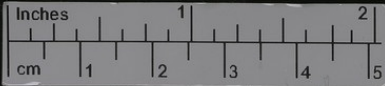
구할거시디사밧일에올타안타하니주 같이되거주션을흥년간달



너의같이 되우리 일즉 주의 압페셔 욕신 호고 주 또한 우리 곁이에  
 셔갈으 첫다 한즉 데갈으 되너의게 말호너니 너의가 어디로 오너디  
 하디 못호갓다 너의는 불의를 힘호너자니 나를 버나 가라 호리라 셔여  
 너의 압디 함파 이삭 파야 곱파 밋모둔 선디 하느님의 나라에 이 스물  
 보고 너의 밋배 썩거나 죽시인 곡절 치호리라 동세 남북으로 부터 사람  
 이 장차 곱으리 하느님의 나라 뜻게 안즈되다 못후에 잇년자는 호민  
 저가 되고 또 한민 저 잇년자는 호후가 되너니라 호터라 당일에 바리시  
 수인이 날으리 갈으 되여 기를 썩나 가라 호운 해룻이 너를 죽이 고 호  
 미라 예수 다투 호여 갈으 되가 데여 우게 호여 불으 되 오늘 파 너 일  
 에 너 귀신을 썩추며 병을 썩터리니 데 삼일에 너의 날이 일출디라 다 못  
 오늘 파 너 일파 모래는 너 맛당이 회 호문 선디가 예 루사렘 밋게 셔는 망  
 디 안으 미라 예 루사렘 예 루사렘 아너 선디를 죽이며 보너 들 밋드려 너  
 의게 나 아온 자를 돌노 씨 터년자야 너의 아델 모우 고 자 호기 호 암 말  
 기 식기를 날이 아레 모움갓터 한디가 몇 번이나 너의 윈터 안으 니 보라

마즈사 밋일 예 예수  
 누가 데 습사 장

바리시 한 두루 의 잠에 들어 가 함과 이



너의집이장차비린거시될더라니실노너외게말하너니나를보다못  
 하고너의주의 일음을부탁하여온자복이잇다말하기를서여야보리라  
 하더라

누가데습사장

마침사밧일에예수 바리시한두목의집에 들어가 밥먹으려하는데  
 못사람이엿보더라한고탕증하년자그압베이스니예수 범골으  
 차년스승파밧바리시인게늘너같이되사밧일에병곳티미가하노하  
 나못사람이잠잠하거늘예수 그사람을곳터보니고이여못사람게  
 같이되너의등에쇼파나구가울물에싸디미이스면비록사밧일이나  
 누가즉시슬어너이다인으랴하너못사람이그말을뒤담디못하더라  
 예수 청하여온사달이슈자퇴하물보고비사를버푸리같이되사람  
 이너를청하여혼연에나아가되슈자에안디말나점푸던너보담놓  
 쏘자이서청하를보면너파테를청하사람이나아외게늘너같이되  
 자리를너여이사람을주라하즉너부구러워만석으로나아가리라오



직청홀씨여가말석에안저너를청한자나아와너으게닐니갈으되벗  
 은올나안즈라호변곳너의영화를한게안존자으게이들이라무른놈  
 품테호년자는반드시낫게호고나주테호년자는반드시놈게호너니  
 러호고또청한자으게닐니갈으되너혹덤심과전약올뒤홀씨여벗과  
 동심파친척파및부자근체를청티말나접푸건던테또한너를청호여  
 너감푸물밖으리라오직연석을비설홀씨여가난한자와병신과절누  
 익이와외경을청한즉너복이이슬거시테씨너의게갑푸미업고올운  
 자늘어날씨여너장자갑푸물어들이라호니함게안젓던한사람이이  
 를듯고갈으되하느님의 나라에먹년자복이라호니갈으되혹이뒤  
 연을비설호고청한비씨만은데잔체씨여종늘보너여청한비씨으게  
 고호여갈으되오소서빅물을갓추왔다호미뜻사람이갓티호여사양  
 호되그한나은말이니뱃틀삿터니모루미가보가스니청건던너사양  
 호볼준호소서호고한나은말이니쇼다숫쌍을삿터니가시염기자호  
 니청건던너사양호볼준호소서호고또한나은말이니체를취호여고

남명무로호여셔도오이름나문자리가있너이다호니주인이종으게  
 빌니갈으되너길에와바주역에나아가사람을강청호여디란다너집  
 에가니호고너니라니너의게말호너니전에청하버사람은한나토너





로 능히 가디 못하갓다 하니 종이 들아와 주인게 그 일을 고한 뒤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을 명하여 갈으되 속기 성통에 큰 벌이와 글묵에 가난한  
 자와 병신과 쇠경과 절누이 이를 인도하여 오라 하니 종이 갈으되 주인  
 님 명되 노하여셔도 오이려나문 자리가 잇더니 이다 하니 주인이 종이게  
 빌니 갈으되 니길에와 바주역에나아가 사람을 강청하여 디려다니 집  
 에 처우라 하니 니라 니더의게 말하니 전에 청하비 사람 온한나 토너  
 전체를 맛보미 업스리라 하니 열어 사람이 함께 힘히던데 예수 들  
 아보고 갈으되 만약 니게나아와 그 부모와 처자 파동 심파누이 파 및 자  
 괴 목숨을 미워안년자는 능히 니의 데자되디 못하꼬 그 습지가 를 지고  
 나를 좃디안년자는 또한 능히 니의 데자되디 못하니 니라 니의 귀가 탐  
 을서우고자 홀던던 민제안저 그 부비를 게티안고 죽키 씨 일을 일우라  
 접푸건던 그 터을 두고 능히 일우디 못하면 보년자다우서 갈으되 이사  
 람이 일을 시작하꼬 능히 일우디 못하갓다 하니 라어느 국왕이나아가다  
 론왕으로 터부러싸음하면 민제안저 공돈터안개 능히 일만으로써테



이만으로와 티년자를더덕하랴 그러티안으면데오아려머럭실적에  
 사자를보녀화친을구하리니이갓트면무튼너의가운데잇년비를  
 다비리더안년자는능히너데자되더못하리라소공은도는거신데다  
 못그맛슬힐으면엇더싸게하랴맛데도맛당티안꼬걸금에도합당  
 티안꼬오직맛게비리너니라귀이시면들으라하더라

누가데습오장

그셔여모든세판파죄인이나와듯년데바리신파선비옹얼거려  
 갈오되데죄인을더려함게밥먹년다하니예수 비사로써갈오되너  
 의어느사람이일뵈씩양에서그한나이페면아직아흔아음을들어에  
 두고기펜거슬살나만너메늘으디안으랴만년죽거워억기여지꼬  
 집에닐으리그벗과근체를모우고갈오되날노터부러함게즐거워하  
 자너펜비양을만너엿다하리라너의게말하너니이갓죄인에한  
 나이회기를한죽하늘에서즐거워하기를회기쓰디안을아흔아음을  
 운사람보담승하리라어느부인이온돈열남에서그한나을힐으면들

사자업파조한줄거우미엇나라조갈오되한사람이두아들이잇  
 년데마즈막이그아밤게말하야갈오되아반이산업으로싸너의갓부  
 를주소서하미이여산업을논아주니후에열어날이못하야마즈막아  
 를주소서하미이여산업을논아주니후에열어날이못하야마즈막아



올허며 집을 쓸어 자세이 차자만 너메 글으디 안으랴 만년 즉 그 벗과 근  
 체를 모우고 같으되 날 노더 부러함 게즐거워 하차 힐은 비돈을 만년 옛  
 다 하리라 너의 게 말너니 이 갓티 죄인에 한나 이 회기 한즉 하느님의  
 사자 압페 또한 즐거우미 잇너 니라 또한 같으되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잇  
 년테 마즈막 이그 아밤 게 말하여 같으되 아반이 산업으로 써너의 것 부  
 를 주소서 하미 이여 산업을 논아 주니 후에 열어 날이 못하여 마즈막 아  
 들이 다 거두워 면테 노닐어 거괴서 규모 업서 그 산업을 허비하여 이 무  
 다 모진 한덕 음에 그 짜이 크게 기항하여 비르 소군 돈하여 이여가 그곳  
 한 사람으 게 붓투 니테 밧테 보너도 야지를 치너테 도야지 먹년 삭다  
 로 써 비들 치우고 자하되 주년 사람이 업스니 방야으 로 써 다라 같으되  
 너의 아반이는 삭군이 얼미로 되그 방식이나 문거시 잇년테 나는 여괴  
 서 주우려 죽어가 니닐어 아반이 게 돌아 가 말하기를 아밤이 닢 죄를  
 하느님파 밧아반이 악페어 터시 니다 시는 아반이 아들이라 하미 합  
 당티 못하가 시니 날 노하여 금아반이 삭군파 갓티테 기 소써 하갓다 하

나 이 회기를 한즉 하느님께서 즐거워 하기를 회기 쓰디 안을 아픈 아픔을  
 온사람 보우고 하리라 너의 것 부인아 아밤이 다라 한즉 하느님의



고이여닐어그아밤게돌아가는데샹거오이려멀어셔그아밤이보고  
 어엿비네겨말아가그목올인고입을맛초니아들이갈오되아반이너  
 죄를하느님과 밋아반이게이더시니다시는아반이아들이라함미  
 합당티못하갓너이다하니아밤이종을명하여갈오되지극키아름다  
 운옷을속키취하여입피며갈악지를그손에세우며그발에신을신  
 기고또살신송아지를슬어다잡고우리먹으며놀자하리라아들은  
 죽었다다시살며힐었다다시만년였다하고이여항게즐거워놀더라  
 마즘낫아들이밧테셔돌아오다가장차집에갓가와풍악과춤물듯  
 고이여한종을볼너그연고를무룬뒤갈오되셔방님동심이돌아와셔  
 주인님이살진송아지를잡아시니그병업시다셔드클위하미라하  
 니맛아들이노하여줄너들어가디안으미아밤이나와권하니뒤담  
 하여끌오되니아반이를섬기년디열어히여명을어그려티다안아서  
 도아반이한나양의식기를주워너의벗으르러부러항게놀나안터니  
 오직이아들은게집질노써아반이산업을다터엇년테오자즉시위하

예수  
 노가슴복장  
 소한테자오게볼너갈오되혹이부자의차인을산업허비하무



여살친송아지를잡앗다하니아밤이갈오되아들아너는나파항게호  
고너의잇년비가다베게벗터시오직너의동싱은죽엇다다시살고  
할엇다다시만년엇기로우러맛당이놀며즐거워한다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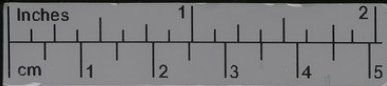
누기습독장

예수 또한테자으게볼너갈오되혹이부자의차인을산업허비호무  
로써그주인게고한디주인이볼너갈오되너듯년비가베무순일이냐  
너보던일을탓너고다시일을보디말나하니차인이스서로갈오되주  
인이너일보던직분을아스니너장차엇다하리요싸을팔너도힘이업  
고동녕을홀너도붓구러올더라너홀비를아니일보다너턴후에사람  
으로나를그집에더접게호리라하고이여주인의빗진자를한나식불  
너다그한나으게볼너갈오되너의주인게진거시얼미냐갈오되기  
림일빅말이라하니갈오되너문세를가져다즉시안저오습말이라쓸  
아호고또그한나게볼너갈오되너진거시얼미냐갈오되밀일빅석이  
라하니갈오되네문세를가져다야든섬이라쓸아호되주인이이불의



옛차인을 칭호문그 칭호미공표호물인호미라더기이세상사람이그  
 동류으게는 광명한사람보담더공표호니라너너으게말호너니맛당  
 이불의의지물노써벗을사구야업서던후에시러금근너잇년집에뒤  
 접게호리라자근데올운자는근데도올꼬자근데불의한자는근데도  
 불의호너니라만약너의불의지물에올티안으면취참된거스로서너  
 의게부탁호며만약너의사람의히여올티안으면취너의히로써너의  
 를주라한종이두주인을섬기더못호문혹이를미워호며테를사랑호  
 표혹이예벗투며테를경이네기미니너의능히하느님과파 직신을섬  
 기더못호너니라호터라바리신인은지물을도와호년고로이말을듯  
 꼬미우수니예수 같으되너의사람의악폐셔스서로올물칭호되  
 오직너의마음을하느님이 아너니라사람이놈피년비는하느님  
 으게는고약한거시라요인너으게글으려늘법파선디잇고그후에하  
 느님의 나라복음이턴호여사람마당힘써나아가너너던디업서다  
 미홀범한희너머담보담오이러쉬우니라무룬그체를버리고말니취

...부러워하되나가가와그한데를할터미마즘누걸이죽어턴사  
 ...아압라함의품에보노고부자노한죽어장사호민더옥달려가운



흥년자도 음난을 흥흥미요 그 비린비를 취한자도 또한 음난을 흥흥미  
 라한부자이셔자더와가는비를입고날마당번화이놀고오은몸에헌  
 데난누걸나사로라한자를부자의문밧게두워상에서셔러던거스로  
 써비부러흥터니가이와그헌테를할티미마즘누걸이죽어던사  
 붓들어압라함의품에닐으고부자또한죽어장사흥미더옥말년가운  
 데눈을들어멀니압라함파또나사로그품에이스물보고아여불너갈  
 으되니의조상압라함아나를어염비네겨나사로를보너여손뺏들물  
 에덕어다닌혜를차게흥소서니이불췌치가운데서말년이심흥니이  
 다흥니압라함이갈으되아희야세상에이슬씨여너는도운거슬밧았  
 고나사로는뜻된거슬밧아시물싱각하라이제는안위를엇고너는말  
 년을밧너니라다못이췌안이라우리파너의사이여큰웅거리로한텡  
 흥여시니어괴로너의게건너가고자흥여도능티못흥고거괴로너게  
 나오고자흥여도또한능티못흥갓다흥니갈으되그런즉조상게구흥  
 너니나사로를보너여너아반이집에가닌형데다숫사랑이이스니하



여금간증하여 데달이또한이달년호년곳오기를면계호소서압라함  
 이갈오되테모쇼와션디이스니들으리라호미갈오되그러티안수다  
 만약죽으무로부터나아가년자이스면테반드시회기호리이다호니  
 압라함이갈오되만약모쇼와션디를듯디안으면곳죽으무로부터니  
 년자이서도테또밧디안으리라호터라

누가데습찰장

예수 또테자으게닐너갈오되사람을것티년거시능히오디안오미  
 업스되다뭇오게호년자가되화니라이적은사람에하나올것티게홀  
 딴던차라리큰망돌을목에미고바다에터디미니맛당이스서로조심  
 호라만약너의동심이죄를네게어든즉최망하여회기한즉샤호고만  
 약하루닐굽번네게죄를엇고닐굽번네게돌아와갈오되너회기호였  
 다호면맛당이샤호라하니몸네자주게 날오되청컨던우리의밧으  
 물티호소서쥬 갈오되너의만약거지종지한알간콤밧으미이스면  
 곳이생남클명하여살이를세여바다에시무라호여도또한너의를들

라종인물이명을주차호호면은통이업스라이맛당이항을비를호호였다  
 호면맛당이스서로닐오되살테업손종이맛당이항을비를호호였다  
 호리라예루사렘에갈져여시미라와가니네를디너가다가한촌에닐





을 더니 너의 가운데 어느 사람이 종이 이서 흑밭 갈며 즐싱치다가 밧트  
 로 돌아오미닐너갈으되 너속키나와게안즈라 하엿디네 밤을 예비  
 하고 셔를 써고나를 성기다가 음식다 먹은 후에 너먹으라닐으디 안으  
 라 종인델이 명을 좃차히 행하면은 통이 업스랴이갓티 너의 명한 비를 행  
 하면 맛당이 스서로닐으되 쓸데 업슨 종이 맛당이 행홀 비를 행 하엿다  
 하리라 예루사렘에 갈셔여사마랴와가니 너를 디나가다가 한촌에닐  
 으니 뵈남 풍헌년 자 열 사람이 만년 여멀니서서 솔이를 터갈으되 선싱  
 예수는 나를 어염비비기 소셔 예수 보고 갈으되 너의 가스서로 제  
 사으게 보이라 하니 데델 갈셔여 뵈남 풍이 간정하디라 그 둥한나이나  
 으물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영화를 하느님 으게 돌니고 예수의 발  
 아레 업더 여샤래 하니 이사마랴 사람이라 예수 갈으되 열어 사람이  
 정티안 앗디냐 그 아웁은 어디 있디냐 이타국 사람 외여는 돌아와 영화  
 를 하느님 으게 돌니년 자를 만년 미 업스냐 하고 이여블너갈으되 블  
 어 돌아가라 네의 밋으미 너를 구완 하엿다 하더가 바리시인이 하느님



의 나라이어느새여늘은물무룬뒤 예수 더답혀갈으되하느남  
 의 나라이낫타나게늘은디안올디니또한말티못홀거시어괴잇다  
 터괴잇다하되하느남의 나라이너의속에잇너니라하고또테자게  
 날디갈으되새장차늘으려너의인자의한날을보표차하나시려금보  
 디못혀리라혹이너의게고혀갈으되어괴잇다혹터괴잇다하되나  
 가디말고속디도말나번기하늘에어괴셔번듯터괴셔빛남갓티인자  
 제날에또한이러혀리라다못반드시민저만이고상을밧고비리물이  
 세쌍개보와스니또노아의새갓티인자의날에또한그려혀리라사람  
 이음식이취하다가노아비여드년날에밧쳐홍슈늘으려다멸하고또  
 늦게새갓티사람이음식하며당사하며곡석심우며집짓다가다못늦  
 이소도마에나가년날에하늘노부터불파뉴황이니려다멸하여시니  
 인자낫타날날에또한장차이갓트리라그날에집우에잇년자그괴명  
 이집에이서도니려와취티살며밧테잇년자돌아오디말고늦의체를  
 싹(삭)하라그싱명을보존코자하년자는반드시힐코오직힐은자는반

은것터러하니무사람이무려갈으되주어느곳에이슬잇가갈으  
 되죽은것잇년곳에망이반드시모이니라하더라  
 누가테습팔쟝  
 예수 또비사를말하여테멸노늘빌고낙담티말게하여갈으되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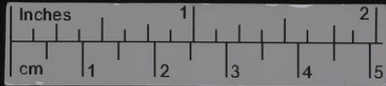


시보존호리라너니으게말호너니그밤에두사람이자리를함게호년  
 데한나온더러가호한나온것티며두네인이함게말질호년데한나온  
 더러가호한나온것티며두사람이밤테잇년데한나온더러가호한나  
 온것티리라호니못사람이무리갈으되쥬 어느곳에이슬잇가갈으  
 되죽운것잇년곳에망이반드시모이너니라호더라

누가데습팔장

예수 또비사를말호여데덜노들밀고낙담티말게호여갈으되아무  
 고을한판당이이서하느님을 두려워안으며사람을혐의티안년데  
 그고을에파부이서늘와갈으되청견던년원을워슈으게퍼주소셔호  
 되올이허티안코후에스서로날니갈으되년비록하느님을 두려워  
 안으며사람을혐의티안으되다못이파부가나를피롬게호니년장차  
 그원을퍼늘와나를문주게호물면호리라호니쥬 또갈으되이불의  
 의판당에말호년비를들으라그썬빅성이밤낫빌면하느님이 비록  
 참우나엇디그원을퍼디안으라너너으게말호너니반드시속기퍼리

신학호라그심명을보존코자호년자는반드시할코오직할은주는안



라다 못인 자 날으러 밋으 볼세 상에 만 나랴 스서 로 올운 테 호고 사람을  
 멸시 호년 자를 예수 비사로 말 호여 갈으 되 두 사람이 성면에 올라 비  
 녀 데 한 나 은 바리 시인 요 한 나 은 세 판 이 니 바리 시인 이 호 올 노 서 서 빌  
 어 갈으 되 하느님 아 하느님 게 감사 호너 니 나 는 다 른 사 람 갖 티 토  
 식 호며 불의 호며 음 난 을 안 코 쏘 이 세 판 파 도 갖 디 안 은 거 시 닌 날 에 여  
 두 번 금 식 호고 쏘 무 룬 잇 년 비 로 썬 열 에 그 한 나 올 델 이 너 이 다 호 니 세  
 판 이 멸 니 셔 서 감 이 눈 을 들 어 하 늘 을 올 리 르 디 못 호 고 이 여 가 스 을 려  
 갈으 되 하느님 나 죄 잇 년 사 람 을 어 염 비 베 기 소 서 호 너 니 라 닌 너 으  
 게 말 호 너 니 이 사 람 이 집 에 돌 아 가 데 보 담 을 우 출 칭 호 니 무 룬 늙 쫘 테  
 호 년 자 는 반 드 시 나 자 디 고 나 존 테 호 년 자 는 반 드 시 늙 과 디 너 니 라 호  
 더 라 후 이 어 린 아 희 를 뒤 리 고 예 수 으 게 민 지 오 고 자 호 너 데 데 자  
 보 고 최 망 호 니 예 수 볼 너 오 고 갈으 되 어 린 아 희 를 용 남 호 여 너 게 나  
 아 오 게 호 고 금 티 말 나 하느님 의 나 라 사 람 이 이 갖 트 니 라 닌 실 노 너  
 의 게 말 호 너 니 어 린 아 희 갖 티 하느님 의 나 라 을 밋 디 안 년 자 는 시 리

만 나 음 난 되 말 며 살 영 말 며 도 적 질 말 며 명 비 단 간 중 말 며 너 의 부 모 를  
 공 경 호 라 호 니 갈으 되 이 거 손 너 어 렵 서 부 탐 다 덕 기 었 너 이 다 예 수  
 듯 고 갈으 되 너 오 이 렵 한 나 이 이 즈 러 터 시 니 잇 년 비 를 다 파 라 가 난 을  
 길 단 주 지 물 어 하 늘 에 이 슬 이 니 쏘 안 서 나 를 쫘 추 라 호 니 그 사 람 이 이



금들이가더못흐니라 하더라 관량이 무리 같으되 선한 선심 남너  
 장차 었더야 영심을 들이요 하니 예수 같으되 너 었더 씨 나를 선  
 타 칭호 너 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 곳하느님 이라 게 명은 너 아 년  
 비니 음 난 티 말며 살인 말며 도적질 말며 망녕 된 간증 말며 너 의 부모를  
 공경 호라 하니 같으되 이 거 손 너 어 려 서 보 탐 다 덕 기 었 너 이 다 예수  
 듯 고 같으되 너 오 이 러 한 나 이 이 즈 러 터 시 니 잇 년 비 를 다 과 라 가 난 을  
 건 단 즉 지 물 이 하 늘 에 이 슬 이 니 쏘 와 서 나 를 좃 추 라 하니 그 사 람 이 이  
 를 듯 고 근 심 이 심 호 문 큰 부 자 의 연 고 터 라 예 수 보 고 같으되 지 물 잇  
 년 자 하 느 님 의 나 라 에 나 아 가 미 열 여 운 디 라 약 디 바 늘 귀 여 나 가 미  
 부 자 하 느 님 의 나 라 에 나 아 가 년 것 보 담 오 이 러 쉽 다 하니 듯 년 자 같  
 으되 그런 즉 귀 능 히 구 완 늘 어 들 잇 가 같으되 사 람 이 능 터 못 한 비 를 하  
 느 님 인 즉 능 호 니 라 피 들 이 같으되 우리 입 절 늘 비 리 고 주 를 좃 찾  
 너 이 다 호 니 같으되 너 실 노 디 으 게 말 호 너 니 사 람 이 하 느 님 의 나 라  
 을 위 호 여 집 파 부모 와 동 성 파 처 자 를 씨 나 면 금 세 쳐 열 어 곱 슬 었 고 너

의게 말호 너 너 어 려 아 의 갖 티 하 느 님 의 나 라 을 밧 디 안 년 자 는 시 러



세여 영성을 었더 못하년 자업스니라 예수 열두테 자를 더리고 같이  
 되우리어 투사럼에 올라 간즉 선디 기록한 빈 자를 같이 친비말이다  
 받드시일우리니 인자외방사람으게 부뵈히 통하며 능욕하녀 춤밧으  
 며 또 첫덕으로 티며 죽인즉 데삼일만에 다시 날갓다 하되 데자한 하더  
 도 씨닷더 못하니 그말이 감추이워 본온 비를 아디 못하더라 야니가에  
 갓가운 세여 한 쇠경이 길역에 안저 동녕하다 가사 람디니 가물듯고 연  
 고를 무룬디 후이 같이 되나 살일 예수 더닌다 하니 쇠경이 물너 같이  
 되다 빛의 후에 예수는 나를 어엿비네기 소셔하니 암페히 하년 자부  
 지저 하여금 잠잠하라 하되 데더 크게 물너 같이 되다 빛의 후에 예수는  
 나를 어엿비네기 소셔하니 예수 서서 명하 여 더러다 갓가 우리 무  
 러 같이 되나 더러 무위슬네게 하고 자하녀 나 같이 되주야 니 보물 었  
 고 자하녀 이다 예수 같이 되보라 비의 빛이 미너를 낮게 한다 하니 이  
 여 즉시 보년 더라 예수를 좃차 영화를 하느님게 돌나니 못되 성이 보  
 고 또한 하느님을 칭찬하더라

더 못하문게 가적으미라 이여 알부르 말야가 생남우에 올라 보려하니  
 예수 장차 일노 말무야디 날가 하미라 예수 그곳에 본으리 올어려



고도 한하느님을 칭찬하더라

누가데습구장

예수 야니기에 들어가더니 가년테 한 사람의 일음은 삭키니 세관의  
 두목으로 부자라 예수를 엿던 사람이 가보고 자하되 사람이 만아보  
 더 못하 문키가 적으미라 이여 압푸로 말아가 생남우에 올라 보려하니  
 예수 장차 일노 말무야 디닐가 하미라 예수 그곳에 날으리 올어려  
 보고 같으되 삭키야 속키니라 오닐니가 반드시네 집에 머물갓다 하  
 니 이여 급피너려 즐겨워 영접하니 못사람이 보고 응얼걸여 같으되  
 죄인으게가 머문다 하더라 사키서서 주게 블너 같으되 주야 너잇  
 년비절반으로 써가 난을 건드되 만약 누히를 토식하여 스면사 곱슬갑  
 갓너이다 하니 예수 같으되 오닐 구완이 이 집에 남하문 그또한 압리  
 함의 자손을 인하니라 인자 오문힐은 자를 차 구완하미라 하더라 못  
 사람이 이말을 들을 썬여 예수 또 비사를 말하무에 루시럼에 갓가외  
 못사람의 뜻에 하느님의 나라이 장차 나타나 물인하미라 고로 끝으  
 되 귀한 사람이 먼데 가나라 봉하늘 밧고도라 오려하여 그 종열을 불너



은 열근을 주며 날니 같으되 당사 하 여나 도라 오물기 더리 라 하 미 그 뵈  
 성이 미워 하 여 사 자를 그 뒤로 보 니 여 같으되 이 사람으로 우리 게 왕 노  
 릿길 자 안이 하 갓 다 더니 마 즘 나 라 을 밧 고 돌 아 와 명 하 여 은 준 종 딸 을  
 불너 다 가 당 사 하 여 열 미 나 닙 것 너 닢 알 고 자 하 니 그 한 나 이 날 으려 같  
 으되 주 인 남 주 인 의 한 근 으 로 열 근 을 닙 것 너 이 다 하 니 주 인 이 같 으되  
 을 타 션 한 종 이 여 너 차 근 데 을 아 스 니 열 고 을 권 세 를 치 테 하 라 하 고 그  
 뒤 음 이 날 으려 같 으되 주 인 남 주 인 의 한 근 으 로 닢 근 을 닙 것 너 이 다 하  
 니 주 인 이 또 한 날 너 같 으되 너 는 다 슯 고 을 을 치 테 하 라 하 고 또 그 뒤 음  
 이 날 으려 같 으되 주 인 남 주 인 의 한 근 이 어 괴 잇 너 이 다 닢 슈 건 으 로 쓰  
 싸 간 닢 후 문 주 인 은 엄 한 사 람 이 라 두 디 안 으 데 취 하 며 시 무 디 안 으 데  
 거 두 물 너 무 셔 워 하 미 라 하 니 주 인 이 같 으되 약 한 용 아 니 베 입 으 로 말  
 무 야 너 를 판 죄 하 리 라 네 가 나 를 엄 한 사 람 이 라 두 디 안 으 데 취 하 며 시  
 무 디 안 으 데 거 두 년 술 을 알 단 된 엿 더 닢 으 로 쓰 저 자 에 두 워 너 가 온  
 후 에 그 나 새 지 병 하 여 취 하 게 안 앓 너 나 하 고 이 여 자 우 를 명 하 여 같 으

노릇이 자 안이 하 갓 다 더니 마 즘 나 라 을 밧 고 돌 아 와 명 하 여 은 준 종 딸 을  
 불너 다 가 당 사 하 여 열 미 나 닙 것 너 닢 알 고 자 하 니 그 한 나 이 날 으려 같  
 으되 주 인 남 주 인 의 한 근 으 로 열 근 을 닙 것 너 이 다 하 니 주 인 이 같 으되  
 을 타 션 한 종 이 여 너 차 근 데 을 아 스 니 열 고 을 권 세 를 치 테 하 라 하 고 그  
 뒤 음 이 날 으려 같 으되 주 인 남 주 인 의 한 근 으 로 닢 근 을 닙 것 너 이 다 하  
 니 주 인 이 또 한 날 너 같 으되 너 는 다 슯 고 을 을 치 테 하 라 하 고 또 그 뒤 음  
 이 날 으려 같 으되 주 인 남 주 인 의 한 근 이 어 괴 잇 너 이 다 닢 슈 건 으 로 쓰  
 싸 간 닢 후 문 주 인 은 엄 한 사 람 이 라 두 디 안 으 데 취 하 며 시 무 디 안 으 데  
 거 두 물 너 무 셔 워 하 미 라 하 니 주 인 이 같 으되 약 한 용 아 니 베 입 으 로 말  
 무 야 너 를 판 죄 하 리 라 네 가 나 를 엄 한 사 람 이 라 두 디 안 으 데 취 하 며 시  
 무 디 안 으 데 거 두 년 술 을 알 단 된 엿 더 닢 으 로 쓰 저 자 에 두 워 너 가 온  
 후 에 그 나 새 지 병 하 여 취 하 게 안 앓 너 나 하 고 이 여 자 우 를 명 하 여 같 으





후에 그나 제지병하여 취하게 안았나고 고이여 자우를 명하여 갈

되느한근을 아사 다 열근 잇년자를 주라 하니 갈으되 주인 근데 열근이  
잇니이다 하니 갈으되 너으게 말하너니 무론 잇년자는 반드시 더 주  
고 업년자는 그 잇년비 새지 또한 반드시 앓고 다 못 너의 원슈와 나로 왕  
노릇코자 안이 하던자는 슬어 다 너 압페셔 버이라 하니 라 말을 다 하  
고 압푸로 히 하 여 예 루사 려에 올라가 마 증한 산에 빌으니 일음은 감남  
산인데 비법과와 비더니 여 갓가 운다 라 두테 자를 보너 여 갈으되 너의  
압촌에 가들어 갈셔 여 자 근나 구민거 슬만 빌디니 종너 타본 사람이 업  
나니 라 졸어 슬되 만약 너으게 풀어 무엇 하라 너야 무루면 더 답하 여 갈  
으되 주의 쓸거시라 하니 보너 엇던 사람이 파 언그 말한 비갓 더  
만너 여 풀셔 여 그 주인이 빌너 갈으되 나 구 풀어 무엇 홀나 너야 하니 갈  
으되 주의 쓸거시라 하니 고이여 슬고 예수 으게 나와 저의 옷슬나  
구우에 늦고 예수를 티우고 히 홀셔 여 못 사람이 옷스루 써 길에 패터  
라이 무갓가와 감남 산에 빌일 곳에 빌으미 못테 자즐거워 큰 소리로 하  
느님을 찬미 하니 본비능한 일을 위하 미더라 갈으되 주의 일음으

四十一





과션비와당노나와갈오되너우리게무순권세로써이를형호며너를  
 이권세준차가년디고호라호니예수 디답호여갈오되너또한너의  
 게한말을물을거시니니게고호라요안년의법팀네가하늘노말무얏  
 너나사람으로말무얏너호니그사람덜이사사라이공의호여갈오  
 되만약하늘노말무얏다호면테반드시갈오되엇디밋디안너냐호고  
 사람으로말무얏다호면빅성이다들노써우리를틸이라호문빅성이  
 요안년을션더로알미라이여디답호여갈오되어디로말문디아디못  
 호갓다호니예수 갈오되너또한무순권세로써이를형호물너의게  
 고티안이호갓다호고비사를말호여빅성이게갈오되사람이포도원  
 을심겨농인을세주고다른싸에가올이있다가괴악에밋처한종을보  
 너의농인으게나아가호여금동산에실과를밭티라호니농인이려거  
 저이돌아가게호민또다른종을보너여테또티고업세이네겨거저이  
 돌아가게호민또세번치종을보너니테를또상게호여너비리니동산  
 주인이갈오되장차엇디호리요너사랑호년아들을보너면테아마공



경허리라 허터니 동인이 보고 즉시 서루의 논 허여 갈으되 이는 후사니  
 죽여 산업이 우리게 돌아오게 하야 고이여 동산 밭게 썩차 죽이니 원  
 주장차 었더 썩터 허리요 반드시와이 동인을 멸하고 등산을 다른 사  
 람으게 붓터라 허니 듯년자 갈으되 이거시 말한이 우다 예수 마 주  
 보고 갈으되 클에 날은 비 장인이 비린 비 돌노 짐 모 통이 첫 들을 밍던 다  
 허문 었다 나 무룬이 돌우에 너머 더년자는 반드시 상고 이 돌이 그 몸  
 우에 너머 더년자는 반드시 갈기 되 더니라 허니 썩여 모든 선 비와 제 사  
 당이 그 비사를 허여 자기를 갈이 치년 줄을 알고 잡고 자하되 비성을 무  
 셔 위이여 었보와 탐코 올보너 여거 죽을 운 사람 인 데 허고 그 말에 하를  
 잡아 방외의 권세 여 붓터고 자하니 탐코이 무려 갈으되 선 심님 우리 선  
 심님의 말 허년 비와 갈으치년 비가 다음은 줄을 아년 거시의 모로 세 사  
 람을 취터 안고 오직 참되 무로 썩하느님의 도를 현 허미 니이다 우리  
 가 세를 기산으게 밭터미 맛당 허니 잇가 예수 그 계를 알고 갈으되  
 온돈한 남 푸로 썩너 게 보이 라 귀 화상과 괴 호가 잇 더 나 허니 더 말 허여

라 사 두 귀 인 의 말 이 다 시 니 년 자 었 다 허 여 멧 키 나 아 와 물 어 갈 으 되 선



같으되 키산이 니이다 같으되 클언 즉 키산의 물건으로 쓰리 산으게 들  
 니고 하느님의 물건으로 쓰하느님 으게 돌니라 하니 탐욕이 빅성  
 을 당하여 그 말에 하를 잡디 못하고 또 그 뒤 답을 괴괴이 네겨 잠잠하더  
 라 사두 키인의 말이 다 시년 자업 다 하여 멧기나 아와 물어 같으되 선  
 싱 님 모 소우리를 보야 날 너스되 만약 사람이 덩네는 잇고 직업 시 죽  
 으면 동성이 그 처를 취하여 직업 을 나아 주고 형테 닐 급 사람에게 맛자  
 처를 취하여 직업 시 죽고 그 들직가 그 처를 취하여 또 한 직업 시 죽  
 고 그 세직가 취하여 그 닐 급 직재지 또 클어 하여 다 직업 시 죽고 그 후  
 에 네인 이 또 한 죽어 스니 다 시 닐 씨 여테 누 의 처가 되 리 잇가 훈 닐 급  
 사람이 다 일 즉 취하물인 훈 미라 예수 같으되 이 세 상 사람이 시집도  
 가고 당 리도가 되고 오직 테 세 상 파 죽 으 무로 말 무야 다 시 닐 물 맛 당 이 어  
 들자는 시집도 안가고 당 리도 안가며 또 한 다 시 죽디 못 훈 문 턴 사 갓  
 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 되 미니 다 시년 카 카 이라 죽운 자 다 시 닐 클  
모 쇼 셀 기 편 에 발겨 시 되 주를 칭하여 압 라 함 의 하느님 이 삭 의 하

四十二



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 하 여 시 니 되 리 하 느님 은 죽 은 자 의 하  
 느님 이 안 이 요 이 산 자 의 하 느님 인 거 시 못 사 람 이 데 로 말 무 야 살  
 물 인 흥 미 라 하 니 션 비 수 인 이 되 답 하 여 갈 으 되 션 싱 의 말 삼 이 올 우 니  
 이 다 하 니 후 에 감 이 다 시 못 더 못 하 더 라 예 수 못 사 람 으 게 날 너 갈 으  
 되 사 람 이 었 디 키 리 스토 를 다 빛 의 자 손 이 라 하 너 나 시 편 에 다 빛 이  
 스 서 로 말 이 주 너 의 주 게 날 으 되 너 의 우 권 에 안 저 너 너 의 원 슈 로  
 네 반 등 되 기 를 기 되 리 라 하 니 다 빛 이 키 리 스토 를 주 라 칭 한 즉 었  
 디 그 자 손 이 되 라 하 고 못 뵈 성 들 을 세 여 데 자 게 날 너 갈 으 되 션 비 를 조  
 심 하 라 테 의 는 긴 옷 입 고 된 니 기 를 도 와 하 며 걸 이 에 서 인 사 함 파 회 당  
 에 돕 폰 자 리 와 연 석 에 슈 자 를 도 와 하 니 그 러 하 나 파 부 의 집 직 물 을 삼  
 켜 거 죽 늘 게 비 니 그 죄 밧 으 미 반 드 시 더 옥 등 하 리 라 하 더 라

누가 데 이 습 일 장

예 수 눈 놓 들 어 부 자 직 볼 노 켜 고 에 더 디 볼 보 다 가 또 가 난 한 파 부 돈  
 두 님 더 디 볼 보 고 즉 시 갈 으 되 너 실 노 너 으 게 말 하 너 니 이 가 난 한 파 부

의 보 년 비 물 건 이 날 이 장 차 날 으 리 한 나 들 이 들 우 에 그 테 미 연 시 다 들  
 어 털 이 라 하 니 못 사 람 이 물 어 갈 으 되 션 싱 님 어 느 션 여 이 거 시 이 스 며



의터이년비가못사람보담터만은거시테못사람은그남은빈루씨려  
 디되오직이파부는죽디못한테디닐괴구름다터딘다후이라혹이성  
 턴을알음다운돌파베물노써슈리후앗다말후니예수 갈오되이너  
 의보년비물건이날이장차닐으리한나돌이돌우에깃티미연시다물  
 어틸이라후니못사람이몰어갈오되선성넘어느셔여이거시이스며  
 쏘이일이장차닐을적에무순딩도이슬잇가갈오되너의삼가미혹디  
 말나장차만이니일음을물음쓰고와갈오되너가키리스토라후리니  
 그셔갓가운디라너의죽디말고쏘싸음함파난을듯고경동티말나이  
 거시반드시민제이스되다못마즈막온사로안이라후고쏘갈오되빅  
 성이닐어빅성을디덕후며나라이나라을디덕후고싸이크게진동후  
 여각곳에괴황후고온역후며쏘무셔운것파크게딩도가하늘노붓티  
 이슬니니다못이모든일전에사람이장차닐일을을위후여너의를잡  
 으며군박후회당파옥에붓티며슬어왕후의압페닐을디니이거시  
 너의게간증이되리라고로맛당이너의마음을딩후여엇디써발명후



고미리싱과더갈나너장차너의를말지간파디헤를주워너의모든디  
 덕헌년자능이결으며디답디못헌게홀디니장차부모형테와친척과  
 벗이너의틀판에벗터너의등에멧출취기교또너의너일음을위헌여  
 못사람이미워헌되그러나너의한오리머리슬도힐티안을디너의  
 참으므로써목숨을보전하라너의여루사람이군사의게돌닌비되물  
 본즉그망헌미깃가운줄늘알나써여유디여잇년자맛당이산으로도  
 망헌며성게잇년자맛당이나가교밧게잇년자들어오디말나이는형  
 벌너릴널이니클에기록한비다응헌게헌리라그써여아빈자파젧에  
 기년자죄화이스문사에서반드시큰징앙파노헌미이빅성으게밧출  
 디니테장차칼날에업테여모든나라에사루잡퍼가고예루사람이외  
 방사람으게발피워외방사람의괴약이차메미출디니일월성신이장  
 차딩도가이서사에서모든날아이곤고헌문바다파물결의큰소리로  
 써상심고사람마당낙담헌문누셔워장차세상에늘을뵈일을기디  
 리미니하늘에형세가진동헌미라써여반드시인자권세와큰영화로

무릇가운술을알디니이갓터너의이모든일을모조조하느님의나라  
 가나를알디니이갓터너의이모든일을모조조하느님의나라





써구름을 타고 오물보리라 이런일이 척나자 맛당이 몸을 췌며 머리를  
 들문너의 속홀날이 갓가우미라 호고이여 비사를 말호여 갈오되 너의  
 무화파와 모둔낭우를 보라 방야으로 임나너서 너의 보고너름이이  
 무갓가운술을알디니이갓터너의이모둔일을본즉하느님의 나라  
 갓가운술을알나너실노너으게말호너니이세디가디너가디못호여  
 이일이 다일우리라 텡더가 업서터도 오직너말은 업서디디안으리라  
 너의맛당이 스서로조심호라 너의마음에 비부루며 취호며 잊사너모  
 둔넢네여 놀니워그날이 갑작이 너의함정갓터 남홀가호니이갓터만  
 드시온사의거한사람으게 남홀디라 닳씨여늘빌어 너의능히장차  
 올모둔일을피호고인자의압페서게호라 호고예수 나진즉성년애  
 서갈오치고밤인즉 감남산에수이니 못빅성이발씨여성년애나아가  
 듯더라

누가테이습이장

누룩금호년절또일음은넢년절이테갓가우니모둔세사당과뭇션비



었다 써 예수 죽이기를 도모하 문외 성령 무셔 위함이라 써 여서란이  
 유다으게 들어가니 곳이스카롯이라 칭하 년 열두 데 자의 한나이라  
 이여가 모든 제사 당과 동궁으로 더 부러 었다 예수 잠과 죽이기를 의  
 논하 미테 델이 즐거 워 온 주기를 작명하 나 유다 허락하 표 뜻 사람 업 손  
 괴미를 차자 써 잡아 주려 하 더라 누룩 금하 년 날이 오니 년년 절양 잡년  
 석라 예수 피를 요안년을 보년 여 같으 되 너의 기념년 절연 석을 예비  
 하 여우리를 먹게 하라 하니 같으 되 우리로 어 누 곳에 가 예비 쪼자 하 더  
 니 잇가 같으 되 너의 성에 들어 갈셔 여 반드 시물 동에 든 사람이 너의 를  
 만 날디 니 좃차 들어 가 년집에 들어 가 집 주인 깨 놀으 되 션성이 베게 못  
 기를 너 데 자 로 더 부러 년년 절음 식 먹을 기방이 어 더 잇 더 나 한즉 반드  
 시 비 설한 큰 다 락 들 너으 게 보 이 리 니 거 괴셔 예 비 하라 하 리 이 여 가 파  
 연 그 말 안 리 갖 더 간 너 여 이 여 년년 절연 석을 예비 하 니 라 석 날으 리 듯  
 까 안 즈 익 열 두 몸 데 자 함께 하니 예수 날 더 같으 되 너 심이 하 고 자 하  
 년 기념년 의 파 함께 기념년 절음 식을 히 밧기 전에 먹으 미 너 너 으 게

었다 써 예수 죽이기를 도모하 문외 성령 무셔 위함이라 써 여서란이 유다으게 들어가니 곳이스카롯이라 칭하 년 열두 데 자의 한나이라 이여가 모든 제사 당과 동궁으로 더 부러 었다 예수 잠과 죽이기를 의 논하 미테 델이 즐거 워 온 주기를 작명하 나 유다 허락하 표 뜻 사람 업 손 괴미를 차자 써 잡아 주려 하 더라 누룩 금하 년 날이 오니 년년 절양 잡년 석라 예수 피를 요안년을 보년 여 같으 되 너의 기념년 절연 석을 예비 하 여우리를 먹게 하라 하니 같으 되 우리로 어 누 곳에 가 예비 쪼자 하 더 니 잇가 같으 되 너의 성에 들어 갈셔 여 반드 시물 동에 든 사람이 너의 를 만 날디 니 좃차 들어 가 년집에 들어 가 집 주인 깨 놀으 되 션성이 베게 못 기를 너 데 자 로 더 부러 년년 절음 식 먹을 기방이 어 더 잇 더 나 한즉 반드 시 비 설한 큰 다 락 들 너으 게 보 이 리 니 거 괴셔 예 비 하라 하 리 이 여 가 파 연 그 말 안 리 갖 더 간 너 여 이 여 년년 절연 석을 예비 하 니 라 석 날으 리 듯 까 안 즈 익 열 두 몸 데 자 함께 하니 예수 날 더 같으 되 너 심이 하 고 자 하 년 기념년 의 파 함께 기념년 절음 식을 히 밧기 전에 먹으 미 너 너 으 게



알하노니 다시 거슬 먹디안 켜오 하느님의 나라 일우 메잇츠리라  
 하고 이 여잔을 바다 속 슈하고 갈오 되이 거슬 가져 각기 논으라 너의  
 깨말하노니 너 다시 포도 나무에 나뉠 리를 마시디안 켜하느님의 나  
 라 님하 메잇츠리라 하고 또 썩을 가져 슈하고 썩여 주어 갈오 되이 너  
 님의 몸인 데 너의 를 위하 여 주 거시니 이를 힘하 여 나를 기록하라고  
 엿은 후에 간을 또 한 것 하고 갈오 되이 간은 식언 약이니 너의 를  
 위하 여 흘넌 피로써 써는 거시라 님 나를 팔자 의 손이나 막 함게 상에  
 이스니 인자 받드 시 전에 영하 비가 티 세 생을 비리 된 오직 과 너그 사람  
 은 직화 이스리라 하네 자 서 루 물 어 누가 장 차이를 홀고 하더 라 또 서  
 루그가운데 누가 크 놀다 두니 예수 님 너 갈오 되이 방에 왕이 그다 스  
 리 들 주하고 권세를 잡은 자는 은 주를 칭하 되 오직 너의는 그러 티 간으  
 니 님 님의 가운데 크미 된 자는 맛당이 어 린 것 같고 주인이 되던 자는  
 맛당이 하인 것 들 디니 누가 크미 되랴 님게 간 존자 나 사 환하 년자 나 님  
 게 인 존자가 크미 안이 나 오직 너의 가운데 사 환하 년자 갖트니라 너





갈으되 너의 비려미혹에 들들면 하라 하고 이 여씨나 물터 더 너는 것만  
 멀니 꾸러 비려 갈으되 아바니 아바니 만약 즐기시면 즉시 잔을 너  
 더 너가 게 하소서 비록 그러나 너의 뜻으로 안고 오직 아바니의 뜻으로  
 일으소서 하니 텨사 하느니라 너는 전장게 하더라 또 심이 절통하  
 여 빌기를 더욱 간절이 하니 샴이 피방을 갖터 사에 너려 더 더라 빌기를  
 다 하고 빌어 데 자의 게 나 아와 그 근심하여 자물 보고 갈으되 었 더 자 너  
 나 빌어 나 빌어 미혹에 들들면 하라 하더라 말 할 씨 여 허다 한 사람이  
 보 였고 열 두 데 자 게 한 나 유다 그 압 패 히 하 여 예수의 게 나 아와 입을  
 맛추니 예수 빌너 갈으되 유다 너 입 맛추 무로 써 인 자를 파 너 나 하니  
 자 우장 차이 슬 일을 보 고 갈으되 주 우리 칼 노 써 터 리 잇 가 하 너 데 그  
 둥 게 한 사람이 제 사 당의 종을 더 그 우 권 귀를 삭 그 니 예수 갈으되 이  
 갖트 니 너 터 두 라 하고 이 여 그 귀를 믿 저 곳 티 고 예수 온 비 모든 제 사  
 당 파 성 텨 둥 군 파 당 노 게 팔 하 여 갈으되 너의 나와 셔 칼 파 몽 동 이 로 써  
 도 적 잡 음 갖 티 하 너 나 너 날 마 당 너의 파 함 게 성 텨 게 이 슬 적 에 는 너 게



손을 들니 디안 아스나 이제는 너의 성니 어두운 권세라 하더라 데달이  
 예수 를 잡아 끌고 제사당의 집에 붙으리니 피들이 멀니 좃차 못사람이  
 슬약게서 불꽃인 것인데 피들이 또한 그사이여 안즈니 한 배종이 그  
 불빛을 향하여 안즈니 볼 보고 눈을 부워갈으되 이 또한 예수 를 함게 한  
 자라 하니 피들이 비반하여 갈으되 비야 너야 다 못한다 하더라 이 잇  
 고 또한 사람이 보고 붙으되 너도 그 물이라 하니 피들이 갈으되 사람이 잇  
 안이라 하더라 편시여 또한 사람이 힘써 말하여 갈으되 사람이 실노  
 함게 한 거시 가니 너 사람이 라 하니 피들이 갈으되 사람이 너 말하느니라  
 를 가더 못하노라 말하리라 기우너라 주 피들 놀도라 보니 피들이  
 이여 주의 날은 비달을 기전에 비장차 세 번나를 비반하리라 말을 칭  
 각 하고 이여 빛게 나가 통곡하더라 예수 의 키년 자 희롱하여 티며 그  
 눈늘 가리우고 물어 갈으되 너를 디년자가 니냐 너 말하라 하더라 여터  
 말노쳐 목하더라 아춤에 비성의 땅노와 제사당과 선비다 모야 쓸고 공  
 회에 날으리 갈으되 네 안약 키리스토 연우리게고 하라 하니 갈으되

이노그런즉제가하느님의  
 로다 못사람이갈으되 었다사  
 로간중을스라스서로그입으로들었다



너만약너의게고흐면밋다안고만약너의게물으면더답다안으리라  
 이후에인자장차큰권세잇년하느님의 우견에안즈리라하니다갈  
 으되그런즉네가하느님의 아들이냐하니갈으되너의말호였다너  
 로다못사람이갈으되엇다사로간증을쓰라스서로그입으로들엇다  
 호더라

누가데이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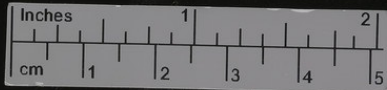
못사람이늘어나피나토으게슬고가송사호여갈으되우리가사람을  
 보니뵈성을미혹호며기산으게뵈터년세를금호스서로키리스토  
 라 왕이라호너이다하니피나토홀어갈으되네가유대사람의왕이  
 야디답호여갈으되다인이말호였너이다호미피나토모든제사당파  
 뵈성으게늘니갈으되너이사람이무순죄기스볼보더못호였다하니  
 못사람이더욱힘써갈으되테뵈성을소동게호져갈을오은유대에년  
 호여가니니로뵈터어기늘으렷너이다호미피나토뵈고물으되이가  
 니니사람이냐하니그헤롯의권세에뵈튼줄을알고즉시헤롯으게보







하여갈으되 데무순악을히향였너나너그죽을죄를보더못향였다고  
 로체티하여뜻가사하니못사람이큰소리로간절이구하기를습지름  
 에못질하라하니데달이소리승향넌다라이여피나토그구헌년비  
 갓티형안하고이여난지어살인하고옥에갓던쟈를노우니어는못사  
 람구헌년비쟈라예수를 못사람으게붓티문그뜻을쫓추미라못사  
 람이슬고갈셔여쿠리니사람시몬이밧트로붓티오니못사람이잡아  
 습지름늘그우에두고하여금지워예수를 쫓추니수다한뵈성이쫓  
 고또열어부인이이서 가슴을티며통곡하거늘예수 돌아보와같이  
 되에루사럼에베인아나를위하여우더말고오직자괴와죄식을위하  
 여올이라날이장차늘으니사람이반드시말하되아가지디못하며아  
 닛티못하며젼에게디못한부인이복이라하고그셔여사람이장차산  
 파닐너갈으되우리게더머디라하며두던파닐너갈으되우리를덥푸  
 라하고퍼런남우에오이러이갓티형거던마른남우를잇디하라하  
 터라또두죄인을살고예수로 터부리함게죽이킬하더라한곳에닐



으니 일음은 두 골잇년 곳이라 즉 시 습 직 틀에 못 질 호 고 또 두 죄인을 한  
나 온 우 견에 호 고 한 나 온 자 견에 호 터 라 예 수 갈으 되 아 바 니 이 사 람  
덜을 샅 호 소 서 그 홀 비 틀 아 디 못 호 터 이 다 호 터 라 이 여 제 비 호 여 그 옷  
슬 손 우 니 뵈 성 은 서 서 보 고 판 당 은 비 우 서 갈으 되 테 다 른 사 람 을 구 완  
호 여 시 니 만 약 하 느 남 의 키 리 스토 요 쉐 비 자 면 가 이 스 서 로 구 완  
호 리 라 호 고 군 사 덜 이 또 한 희 롱 호 여 나 아 와 초 틀 가 저 다 주 며 갈으 되  
테 가 만 약 유 데 인 의 왕 이 면 스 서 로 구 완 호 라 호 고 그 우 에 방 을 썬 갈으  
되 이 는 유 데 인 의 왕 이 라 호 엿 터 라 함 게 못 질 한 죄 인 에 한 나 이 욱 호 여  
갈으 되 너 키 리 스토 가 안 이 나 자 괴 와 우리 를 구 완 호 라 호 니 오 직 그  
한 나 이 최 망 호 여 갈으 되 너 함 게 형 벌 을 밧 으 면 서 오 이 리 하 느 남 을  
두 려 워 안 너 나 우 리 는 맛 당 한 거 시 바 들 비 요 형 한 비 여 함 당 호 되 오 직  
이 사 람 은 형 한 비 가 올 터 안 으 미 업 다 호 고 이 여 늘 너 갈으 되 예 수 나  
라 에 나 아 갈 썬 여 나 를 싱 각 호 소 서 호 니 예 수 갈으 되 너 실 노 베 게 말  
호 니 오 늘 너 반 드 시 나 파 함 게 즐 거 운 사 에 이 스 리 라 호 터 라 그 썬 가

은 보 고 영 화 를 하 느 남 의 기 록 을 보 고 갈으 되 아 바 니 이 사 람 이 라 호 고  
모 야 구 경 호 면 못 사 람 이 에 일 을 보 고 갈으 되 아 바 니 이 사 람 이 라 호 고  
자 와 밧 가 니 너 로 부터 함 게 주 려 부 인 은 멀 니 서 서 보 터 라 한 사 람 의 일



오시둥에오온싸이어두위미시말에닐으리날이그믐하며성년당막  
 이절반이적여디니예수 큰소리로불너갈으되아바니너녕혼을아  
 바니손에부탁하너이다말을다하교괴운이쓰너디니라과총이그일  
 을보고영화를하느님으게 돌너갈으되이실노을은사람이라하교  
 모야구경하던못사람이이일을보고다가숨을터며돌아가교그야년  
 자와밧가니너로못터함게죽던부인은멀니서서보너크한사람의일  
 음은요섭이니정승이라사람되미어딜교또올은디라유너의아니마  
 터교을에못터스되테의도모하며지은비일에참여터인게불너하느  
 님의 나라를기더리년자라이사람이피나토으게나아가예수의  
 시신을구하여취하여너리워가는비로써싸돌에판무덤에두니종너  
 장사한사람업스데터라씨는예비하년날이니사밧일이거의닐은디  
 라가니너로못터예수 파함게온모는부인이뒤를쫓차그무덤과어  
 드게시신두를보고이여도라가향노와올약을예비하여스되사밧일  
 을당하여게명을쫓차수이더니



누가 데이 습사 장

사뵈 후 첫날 밭씨여 갓춘 비향 노를 가지고 무덤에 날으러 들을 무덤에  
 서 골터 노으물 보고 들어 가 주 예수 의 시신을 보지 못하 고 위하 여 두  
 데 홀씨여 두 사람이 빗난이 복을 입고 께 데서 스니 부인 딸이 놀너 여 사  
 에 업 데 니 두 사람이 날너 갈으 되 었 디 산 자를 죽은 자 의 가 운 데 찾 너 야  
 데 어 괴 잇 디 안 괴 날 어 나 스 니 데 가 니 너 게 이 슬 씨 여 너 의 게 날 은 말 이  
 인 사 만 느 시 죄 의 손 에 가 습 지 틀 게 못 질 하 였 다 가 데 삼 일 만 에 다 시  
 날 갓 다 호 롱 싱 각 하 라 하니 부인 딸 이 이 여 그 날 을 싱 각 하 고 무덤 으 로  
 못 더 돌 라 가 다 일 노 씨 열 한 데 자 와 모 든 데 자 게 고 하니 몸 데 자 게 고 하  
 년 사 는 이 막 가 닌 의 마 리 암 파 요 안 닌 와 야 곱 의 오 맘 마 리 암 파 항 게 한  
 비 딸 은 부 인 이 더 라 그 말 노 씨 허 한 호 롱 삼 아 밋 디 안 이 호 되 피 들 은 날  
 어 무덤 에 다 라 가 곱 어 오 직 가 는 비 둔 것 만 보 고 만 닌 비 를 괴 괴 이 베 겨  
 도 다 오 니 라 그 날 에 두 데 자 한 마 울 에 가 너 데 일 음 온 임 맞 시 니 예 루 사  
 렘 에 서 이 습 오 리 라 서 루 만 닌 비 모 든 날 을 말 하 여 니 약 이 홀 씨 여 예 수

었 년 비 일 을 아 더 못 하 너 주 호 니 갈 으 디 무 수 일 이 노 갈 으 되 호 들 노 이 사 이  
 수 의 일 이 니 못 너 더 퍼 하 라 호 니 갈 으 디 무 수 일 이 노 갈 으 되 호 들 노 이 사 이



갖가와 함께 행하되 두테 자눈이 아득하여 아디 못하게 하고 계수  
 빌니 갈으되 너의 행하며서 루무순일을 말하되 나히미그한나일은 온  
 키노과 니더 답하여 갈으되 너예 루사럼에 나가 비되어 호을 노이사이  
 잇년 비일늘 아디 못하되 나히미 갈으되 무순일이 노갈으되 나살일계  
 수의 일이 니곳 선더 되야 하느니라 못뵈성의 악괴셔 말과 행사에  
 능히 미잇다 하여 우리 모든 제사 당파 관당이 부터 죄를 덩여 습직들  
 에 못질 하여 시되 오직 우리는 그이 살일 사람속하기를 바리엿터 나이  
 제일 일운디 사흘인데 우리 둥에 두어 부인이 우리를 괴이게 하문데 덜  
 이 발씨여 무덤에 가그시신을 보디 못하고 하되 텨사 낫타나그살  
 앓다 말호물 보교 우리 둥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파 연부인의 말하비  
 갖티 오직 예수를 보디 못호물 인히미라 하니 예수 갈으되 민한자  
 야 너의 마음에 선디의 말한 비를 더더 깃너 나키리스토가 맛당이 이  
 갖티 히를 밧고 그 영화케 나가 디안으랴 호교이 너모쇼 큰 못티 비릇  
 하여 모든 선디의 게 밧처 무문글에 쓴 비자그 갈으친일을 다 지세이 강



논고갈마을이갓가우미예수 사로형고자하년것갓트니두테자  
 가강청하여갈오노우리로터부러할게뉴하라문성저무러날이이  
 무기우놀안하미라이여들이가함게뉴하년테더부러듯개안존셔여  
 썩을가저축슈고셔여주니두테자의눈이곳열녀이여아니예수  
 문득보이디안년다라두테자서루닐다갈오되길에서우리로터부러  
 말하녀성경을히리홀셔여우리마음이엇디싸디안앗나하고즉시  
 날어제루사럼내돌아가열한테자파함게하년사람모인테를만니  
 주 파연크어시몬으게낫타나를말하녀늘두테자또하길에서만닐  
 비와썩을셔여예수 안일늘고하녀라말홀셔여예수 그가운데서  
 서갈오되너의평안하라하니못사람이경동하고무셔위하영혼을  
 몬가하니예수 갈오되너의엇디황망하고마음에의심하녀나니손  
 파발늘보라이니로다나를민져보라영혼은썩와고기가업서도너의  
 보기부나는잇나하녀이를말하고슈족으로써보이니테자즐거우물  
 위하여밋디안고또피괴이배갈셔여예수 갈오되너의어괴력을거

의글파및서편에그루한나를갈오친거사다반드시응합하리라하  
 피이며그충명을떨어모든영혼을이끄리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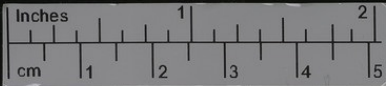


시잇너냐호니이여구운들고기한편을주니예수 가지그압페셔딕  
 고갈오되너사로너의로함개호여너의게말히비모쇼의홀네와선더  
 의글파밋시편에기록한비나를갈오친거시다반드시응험호리라호  
 고이여그총명을열어모든성경을써닷게호고또갈오되글에이갓터  
 말호여시니키리스토가 이갓터히를밧앗다가데삼일만에죽우무  
 로붓터다시블어그일음을부탁호여회기와죄샤호년거슬만국에던  
 홀테예루사렘으로붓터비릇호가시니너의는이일에간증이라너의  
 아밤의허한비로써너오게보너니성에거호여능호미우리로붓터너  
 의주물기딤리라호고이여인도호여빈디니여블으리손을들어축슈  
 호터라축슈호써져셔나들니워하늘노올나가니못사람이절호고심  
 이즐거워예루사렘에돌호가늘성년에서하느님을 칭찬호터라

위호여밧기안고노고과이비길성여예수 갈오되너의어기된음거







강명편

밧림네는 예수피계드년범이니물노써하니라

할네는 예수전 유대국피에드년범인데시조암라함이셔윤비라  
사밧일은미블게예할우식쉬이년범이라

년년절은이살일보성이이굽국게나오던셔를싱각하년날이라  
유대는이살일의남여국명인데로마에부투니라

예루사렘은유대국셔올이라  
성년은 하느님께절하며제하년곳인데에루사렘에잇니라

사마라는유대북견인데로마의하도명이라  
가니는사마라북견인데또한로마도명이라

로마는한고을인데넛적에모순세국의웃듬이라  
발이신는모쇼의피에붓터년테턴사파병혼파죽엇다다시닐를밧년

거시요 사토기도또한모쇼의피에붓터년테턴사파병혼파죽엇다  
다시닐를밧년거시라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이 보좌물이라



